

26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8047.51 (+199.80)		1172.52 (+11.39)
	금리 (연고채 3년)		환율 (원/달러)
	3.664 (-0.072)		1505.00 (-12.20)

비비고·뚜레쥬르
복미 입맛 잡고
'K-푸드' 영토 확장
04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증가 기준 8000선을 넘어선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축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보다 199.80 포인트(2.55%) 오른 8047.51 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뉴시스

사상 첫 8000피 '축포' 진격의 삼전·하이닉스

코스피, 40여일 만에 3배로

韓 증시 전체 시총 7200조 넘어 삼전 2.22%, 하이닉스 5.72% ↑ JP모건 “HBM 가격상승 지속될 것” 단기간 지수 최대 1만2000 전망도

코스피가 반도체를 날개 삼아 26일 사상 처음(증가 기준)으로 8000을 돌파했다. 지난 1년간 1000단위 지수대를 여섯 차례나 갈아치운 과속주세다. 미국 빅테크의 인공지능(AI) 투자에 몰린 돈이 반도체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전력 등 국내 AI 인프라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며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졌다. 유가와 물가를 자극했던 미국과 이란의 휴전 기대감도 한 몫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99.80 포인트(2.55%) 오른 8047.51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8131.15까지 오르기도 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미국 관세 부과 정책 발표 등의 혼란으로 지난해 4월 9일 2293.7까지 하락했던 코스피는 3배로 뛰었다.

이날 상승은 반도체 '투 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했다. 장 중 30만2000원 까지 오른 삼성전자는 2.22% 오른 29만9000원, SK하이닉스는 5.72% 폭등해 205만2000원에 장을 마쳤다. 이에 따라 두 종목의 시가총액은 각각 148조 원, 1462조원으로 늘어났고,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은 7235조원을 기록했다. <관련기사 3면>

단기간 급등한 데 따른 불안감이 시장에 감돌고, 고점 논란이 있음에도 코스피가 연일 급등하는 것은 인공지능(AI) 수요 증가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화하며 반도체 기업 실적 전망치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증권사 합산 영업이익 전망치는 올해 587조 6624억원, 내년 768조5790억원이다.

JP모건은 “한국은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0위 안의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다. 2개 기업 보유는 미국 다음으로 많다”고 짚었다. 단기간 급격히 올라 증시가 하락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를 비중 확대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게 JP모건의 조언이다. 공급이 주도하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할 것으로 판단해서다. JP모건은 “AI 주도 수요가 공급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재고는 빠듯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은 여러 분기 단위의 가격-물량 계약으로 묶여 있어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증권은 주식 시장으로의 막대한 자금 이동과 반도체 이익 성장을 근거로 지수가 단기간에 최대 1만2000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수급 측면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역할이 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 거래 활동계좌 수는 지난달 말 기준 1억508만 8686개로 1년 전보다 17%(8984만675개) 늘어났다. 여기에 상장지수펀드(ETF)가 증시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ETF가 차지하는 일평균 거래대금 비중은 약 60% 수준이다. 지난해 만해도 44%에 그쳤다. 국내 증시가 상승하면서 ETF 시장으로도 자금이 유입되고, 이에 다시 코스피가 상승하는 선순환이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의 포모(FOMO-소외 공포) 심리 확산으로 빚투(빚내서 투자)나 주가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등 손실 위험이 큰 투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코스피 8000을 이렇게 빠르게 달성할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며 “개인투자자들이 주가지수 등의 방향성을 예측해 나서는 무리한 투자는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한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삼성 내부갈등 파고든 ‘中 반도체’

화웨이, 1.4나노 등 칩 기술개발 속도 HBM 고도화 CXMT와 AI생태계 연계 삼성, 첨단공정 실질수율 확보 관건

삼성전자가 노사 갈등과 성과급 논란으로 내부 진통을 겪는 사이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와 생산능력 확대를 앞세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고객사에 대한 신뢰 회복과 공급 안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향후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화웨이는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반도체 심포지엄에서 자사 고성능 칩이 오는 2031년까지 1.4나노(나노미터·10억분의1m) 공정에 상응하는 트랜지스터 밀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독립적인 성능 검증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 속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첨단 칩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관련기사 3면>

현재 글로벌 최첨단 공정은 2나노 경쟁 단계로 진입 중이다. 시장에서는 화웨이의 기술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중국이 대만 TSMC 등 글로벌 선두 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상당 부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 최대 DRAM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역시 상하이 증시 상장을 통해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서며 차세대 공정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허페이와 베이징에 운영 중인 3개 공장의 상반기 평균 가동률은 94%를 웃도는 것으로 전해진다. CXMT는 조달 자금 상당 부분을 생산라인 고도화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연구개발에 투입해 화웨이 등 중국 AI 생태계와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성과급 갈등이 총파업 위기로 번질 정도로 극한 대치를 이어갔지만 최근 성과급 배분 방식 등에 합의하며 극적 타격을 이뤘다. 그러나 노사 갈등 장기화 과정에서 글로벌 고객사들의 공급망 불안 우려가 커지면서 메모리 공급처 다변화 움직임에 발미를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총파업 가능성에 대비해 일부 반도체 생산라인의 신규 웨이퍼 투입량을 줄이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차세대 공정 경쟁력 강화와 첨단 패키징 역량 확보에 속도를 내며 기술 초격차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반의 2나노 공정을 앞세워 차세

대 반도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첨단 공정의 실질 수율 확보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내부적으로 2나노 관련 주문이 2026년 기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 로드맵을 가동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율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저가 스마트폰용 옛지 AI 칩과 가전용 칩 수주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글로벌 고객사들은 삼성전자 내부 노사 갈등 상황 자체를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반도체 고객사들은 공급 일정과 물량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삼성 전자 입장에서 납기 차질 없이 안정적인 공급할 수 있다는 확인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내부 갈등이 계속 노출될 경우 고객사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백업 플랜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삼성전자가 얼마나 빠르게 조직 안정성과 공급 신뢰를 회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



“모든 책임 저에게”... 정용진 ‘탱크데이’ 공개 사과

스타벅스 마케팅 입장 발표 “내부 시스템·리스크 체계 근본 점검 사회적 책임 기준도 더욱 높하겠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최근 불거진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전격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정 회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자신에게 돌리며, 내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느끼신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박종철 열사 유가족, 광주 시민, 그리고 국민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한다”며 공식 고개를 숙였다. <관련기사 4면>

이어 그동안 진상 조사를 진행하느라 공식 입장 발표가 늦어졌다고 설명한 정 회장은 “스타벅스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깊은 아픔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사실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회장은 이번 논란이 현장 직원들에 대한 비난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지금도 전국 매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스타벅스코리아 파트너들과 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열린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

장 직원들을 부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달라”며 “이들은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직장인일 뿐이며, 잘못은 조직과 경영진에게 있다”고 현장 직원을 감싸 안았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대적인 내부 정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 회장은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도 더욱 높하겠다”며 “오늘의 사과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공언했다.

신세계그룹이 향후 리스크 관리 체계를 어떻게 쇄신할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



▲김민석 총리, 집중호우 예보에 긴급 지시...“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 등 관리 만전” /사진 뉴시스
▲구윤철 “성장 좋아지면 물가·금리 상승...환율 절하효과 최소화”

▲정청래 “정용진 뒤늦은 사과, ‘소나기 피하기’ 가식 사과 의심”
▲김상욱 “울산시장 단일화 여조 ‘역선택 방지’ 넣어 27~28일 실시 제안”

▲국토부 철도국장 “GTX 철근 누락, 반드시 별도 보고했어야”
▲중앙선관위, 참관단 전국확대·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

신현송 총재, 내일 첫 금통위 주재

하반기 금리경로 등 메시지 '주목'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간담회 관심집중
수정 경제전망·점도표 함께 공개
시장, 기준금리 동결 전망 우세



◆ 물가·환율·가계빚 등 변수 산적

한은이 안하론을 쉽게 꺼내기 어려운 배경은 물가와 금융안정 양쪽에 있다.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5% 올라 1998년 2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6.9% 상승해 2022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생산단계 물가가 뛰면서 고유가와 고환율이 소비자물가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셈이다.

품목별로도 부담은 뚜렷하다. 석탄및 석유제품은 전월 대비 31.9%, 화학제품은 6.3% 올랐다. 국내공급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5.2% 상승했고, 원재료와 중간재가 각각 28.5%, 4.3% 올라 비용 압력이 생산단계 앞쪽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대외 여건도 우호적이지 않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중동 분쟁에 따른 공급 차질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높은 물가와 불확실성 탓에 현재 정책 기조를 예상보다 오래 유지해야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뒤로 밀리면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 압력은 이어질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안팎에서 등락하는 상황도 한은의 금리 인하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환율 불안은 수입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해 물가 대응 필요성을 더 키울 수 있다.

금융안정 변수도 만만치 않다. 1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1000억원으로

2000조원 턱밑까지 늘었다. 최근 소비자심리지수는 106.1로 낙관권을 회복했고, 주택가격전망CSI도 112로 전월보다 8포인트 상승했다. 금리 인하가 주택담보대출과 자산가격 기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부담이 남아 있는 셈이다.

◆ 기준금리보다 점도표

이번 금통위의 핵심은 기준금리 자체보다 신총재의 첫 메시지다. 물가가 뛰면 얼마나 강하게 대응하는지, 환율과 가계부채를 금리 결정에 얼마나 반영하는지, 성장 회복을 어느 정도까지 확인하려 하는지가 첫 기자회견에서 엿볼 수 있다.

시장 관심은 점도표에도 쏠린다. 2월 점도표가 인하 가능성을 남긴 표였다면, 5월 점도표는 인하 점이 얼마나 사라지고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점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핵심이다. 금리 경로의 평균값과 중위값, 상단이 이전보다 위로 움직일 경우 시장은 이를 사실상 인상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수정 경제전망도 중요하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률 전망을 끌어올리는 반면, 생산자물가 급등과 고환율은 물가 전망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성장과 물가 전망이 동시에 올라간다면 한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명분은 더 약해진다.

첫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더라도 점도표와 경제전망, 총재 발언이 위쪽을 가리킨다면 시장은 이를 매과적 동결로 해석할 공산이 크다. 신현송 체제 첫 금통위는 동결 여부보다 한은의 다음 금리 경로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 설치
들이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일주일여 앞둔 26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작업자들이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뉴스

산업부 “정부 비축유, 직접 방출 신중해야”

주중 정유사 손실보전 기준 고시

정부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긴급 비축유 공동 방출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부 비축유를 직접 방출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이미 민간 정유사들이 비축유 대여(스왑) 제도를 통해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만큼, 국가 최후의 보루인 정부 비축유는 아껴두겠다는 전략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보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 비축유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며 방출해야 된다”며 “현재는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통해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IEA 합의에 따라 오는 6월 8일까지 총 2246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양 실장은 “정부의 비축유 방출은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면서도 “민간 정유사들과 소통을 해봤을 때 민간 정유사들도 스와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정부는 비축유 방출에 대해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실제 비축유를 무리하게 푸는 대신, IEA 분담 의무를 민간 의무 비축

일수 조정’ 등 유연한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 실장은 “정부 비축유는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방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축유 스와프를 활용하고 IEA 비축유 방출 참여는 민간 의무 비축일수 조정이나 다른 방안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참여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기준 고시를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재 정유업체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기회비용까지 반영해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실제 투입된 ‘원가’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가상에 근거한 기회비용까지 국민 형세로 보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 확고해, 원가 기준 정산 방침을 담은 고시안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양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 기준과 고시안은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李 “올해,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

국무회의·비상경제점검회의
공공기관 이전 등 동남권 투자 확대
“양극화 완화 등 구조개혁 본격 진행”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중동 전쟁 이후 하반기 경제 상황과 관련해 “올해가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이 되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3회 국무회의의 결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의 어려움에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하면서 올해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처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서 하반기 경제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해야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중동 전쟁 이후 상황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겠다”며 “양극화 완화 등 구조개혁 또한 본격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며 “국민이 맡긴 세금과 권력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제대로

잘 사용하는게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해수부에 이어 HMM도 이전이 확정됐다”면서 “동남권을 세계적 해양 경제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검토했던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추가 이전도 신속히 추진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 항만·항공 인프라 확충, 해양산업 기반 강화 같은 과제도 완수해야 한다”며 “동남권이 남부 해양수도 중심으로 거듭나 국토 균형발전과 해양강국 미래를 개척하

는 쇄빙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미래형 첨단강군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인공지능과 드론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 핵심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토대”라며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서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연구개발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간 협력 체계 강화 등을 통해서 첨단국방의 근간인 ‘K-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로봇과 드론, 우주 등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미래의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욱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며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 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서예진 기자 syj@



metro

대한상의, 수소 생산 등 규제장벽 완화

수소생산 시스템 등 12건 실증특례

청정수소 생산과 수소 인프라 구축을 가로막던 규제 장벽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완화되면서 생산비를 낮추는 차세대 수전해 기술과 지하형 수소 기반시설 구축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6일 산업통상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총 12건의 실증특례가 승인됐다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지원한 과제는 ‘고체산화물 수전해기를 포함한 수소 생산 시스템’과 ‘기체수소 기반시설 지하화 실증’ 등 3건이다.

포스코홀딩스 컨소시엄이 신청한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 기반 수소 생산 시스템은 이날 실증특례를 받았다. SOEC는 뜨거운 수증기를 고체 세라믹막을 이용해 수소와 산소로 분리하는 기술이다. 기존 수전해 방식보다 전력 소모가 적고 제철소나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할 경우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다

는 점이 강점이다. 포스코홀딩스 컨소시엄은 전남 영광군 전남테크노파크 수전해성능평가센터에 100kW급 고체산화물 수전해기 시스템 1기를 구축해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소 기반시설 지하화 실증도 함께 추진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컨소시엄은 수소저장용기와 연료전지 등 기체수소 기반시설을 지하공간에 설치하고 저장·공급·발전 과정을 검증한다. 이번 실증은 관련 안전장치를 갖춘 지하 설비에서 수소 발전이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컨소시엄은 경기도 평택 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 내에 지하화 기체수소 기반시설 1개소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수소 생산비용을 낮추는 기술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 수소환원제철, 산업공정 탈탄소화로 가는 디딤돌을 놓는 셈”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증시 재평가... 솔림·금리변수 부담

이제 10000 간다

1 고속 랠리 뒤 변동성 확대

코스피가 사상 처음 8000선(증가 기준)을 넘어섰다. 시장이 더 놀라는 것은 숫자보다 속도다. 지난 6일 처음 7000선을 돌파한 뒤 불과 13거래일 만에 1000포인트를 더 올렸다. 지난해 10월 4000선을 돌파한 이후 불과 6개월여 만에 지수는 두 배가 됐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구조 개혁, 예금에서 증시로 이동하는 시중자금이 동시에 맞물리며 한국 증시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장을 연출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일만피(코스피 1만)' 전망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특정 업종 솔림, 빚투 급증, 외국인 차이실현, 실물경제외의 괴리는 '팔천피' 뒤에 드리운 그림자로 꼽힌다.

13거래일 만에 1000P 급등세
삼성전자·하이닉스 신고가 행진
HBM 수요 폭증에 실적 전망 상향
상법 개정·밸류업 기대감 확산
글로벌 IB 일만피 시나리오 제시

◆ 반도체와 개혁 기대가 만든 '코스피 1만' 전망

이번 랠리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폭증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이 빠르게 상향되면서 코스피 전체를 끌어올렸다. 이날 삼성전자는 장 중 '30만전자' (30만2000원), SK하이닉스는 증가 기준 '200만닉스' (205만2000원)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두 회사의 목표주가를 각각 57만원과 380만원으로 제시했다. 국내 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도체 호황은 경제 전망도 바꿔놓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성장률 상향분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반도체 수출 확대에 따른 효과라는 설명이다. 지난 4월 반도체 수출은 319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73.5% 급증했고 전체 수출의 37.1%를 차지했다. KD



ChatGPT로 생성한 최근 코스피 상승장 흐름.

I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2390억달러로 전망했다.

실적이 상승장의 본체라면 정책은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촉진하는 촉매다. 상법 개정과 지배구조 개선, 밸류업 정책, 외국인 투자 접근성 확대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한국 증시의 구조적 활인 요인이 빠르게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JP모건은 반도체를 비롯해 방산, 조선, 전력기 등 미래 성장 산업의 20% 이상 이익 증가와 정부의 개혁 정책을 한국 증시 재평가의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정차권의 추가 입법도 시장 기대를 키우고 있다. 정부는 이사의 주주총설 의무, 집중투표제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세 차례 상법 개정 이어 종북상장 원칙 금지와 코스닥 2부 리그 승강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주목받고 있다. 2년 연속 PBR 1배 미만이거나 수익성이 낮은 상장사에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7월부터 저PBR 기업 리스트를 반기마다 공개하고 종북명 앞에 "저PBR" 태그를 붙이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 증권가 "1만 간다"

글로벌 IB들과 국내 증권사들은 코스피가 연내 1만을 넘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탄탄해지고 있어서다. 올해 한국의 1분기 성장률은 3.6%(전년 대비)로 코로나19 기저효과가 반영된 2021년 이후 가장 높다. '나홀로' 호황을 구가한다는 미국(2.7%)을 웃돈다. 씨티은행은 최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9%로 올렸

다. JP모건은 한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3.0%로 높였다. 바클리는 2.0%에서 2.4%로, 노무라 2.3%에서 2.4%로 올렸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증시를 아시아 최선호 시장으로 유지하며 코스피 목표치를 강세장 기준 1만으로 제시했다. 기본 시나리오는 9000, 약세장 시나리오는 6000으로 전망했다. JP모건은 "중동 분쟁 이후에도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한국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 수출도가 높은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언급하며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장기 상승 국면에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JP모건은 "메모리 수급 부족이 내년에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고객들이 이미 내년 수요를 앞당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노조 문제와 인건비 상승이 향후 영업이익에 7~12% 수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모건스탠리는 연말 목표 범위를 6500~9500으로 제시하며 강세장에서는 1만포인트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현대차증권은 연말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보다 상향한 9750으로 제시했다. 강세장에서는 최대 1만2000까지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KB증권은 올해 코스피 목표상단을 1만5000으로 상향했다. NH투자증권은 코스피 12개월 선형 목표치를 기존 7300에서 9000으로 상향 조정했고, 씨티그룹 역시 목표치를 기존 7000에서 8500으로 높여 잡았다. 대신증권도 지난 8일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7500에서

8800으로 올렸다

증권사들이 전망치를 높이는 이유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투톱을 포함한 코스피 주요 상장사의 향후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KB증권은 올해 삼성전자 연간 이익을 335조원, SK하이닉스는 251조원으로 각각 추정했다. 반도체 투톱의 합산 연간 영업이익은 576조원으로 전년(90조8000억) 대비 6.3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 한은 기준금리 인상 신호는 변수

물가 상승 압력은 걸림돌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2.4%, 하반기 2.7%로 연간 기준 2.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영향으로 올해 중반에는 물가 상승률이 2% 후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같은 물가 불안과 경기 회복 흐름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달 28일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신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유가와 물가 레벨에 따른 통화정책 방향성 변화를 체크해야 한다"며 "경기 회복과 공급 제약에 따른 유가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증시와 경제의 반도체 솔림에 대한 우려도 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반도체 업종의 올해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은 5.2배에 불과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코스피 PER은 15.3배에 달한다. 반

도체는 실적 개선이 추가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다른 업종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졌다는 뜻이다. 산업지표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올해 1분기 반도체 생산은 전 분기 대비 14.1% 증가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은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4월 수출 역시 반도체가 전년 동월 대비 173.5% 급증하며 전체 수출의 37.1%를 차지했다. 성장과 수출, 주가가 모두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도체 한 산업이 상당 부분을 떠받치고 있는 구조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차이실현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일부터 26일까지 1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8조3117억원, 19조241억원 넘게 순매도했다. 증권가에서는 구조적 이탈보다 단기 급등 이후 숨고르기라는 해석이 우세하지만, 상승장의 핵심 동력에 대한 수급 변화가 시작됐다는 점은 부담이다.

외국인 반도체주 차이실현 매도 반도체 편중에 솔림 우려 확산 물가 불안에 금리 인상론 부상 빚투 급증에 과열 경계감 고조 변동성 급등에 숨고르기 압력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 3분기부터 범용 메모리의 가격 급등 흐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PC 및 스마트폰의 수요 둔화가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업체들의 메모리 재고 부족 현상을 완화시키기 시작해 올해 3분기부터는 범용 메모리의 가격은 전분기 대비 한 자릿수 수준 상승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장 일각에선 단기 과열 우려가 나온다. 3월 말까지만 해도 5000선을 위협받다가 불과 두달 만에 8000선까지 급등한 만큼 단기 조정 압력이 거세진 것이다. 단기 급등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날 '한국형 공포 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VKOSPI)는 전장 대비 1.67% 된 68.09를 기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삼성, 파업 위기 넘겼지만... 'K-노조發 성과급 전쟁' 막 올랐다

임단협 가결 무기에 파업 리스크 완화 DS 고액 성과급 논란 계열사로 확산 삼성SDI·전기 보상 불만 수면 위로 주주단체 법적 대응 예고에 갈등 증폭

삼성전자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가결에 무기가 살리면서 총파업 위기는 사실상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그러나 반도체(DS)부문 고액 성과급을 둘러싼 후폭풍은 오히려 커지는 분위기다. 삼성 계열사 내부 반발과 함께 주주단체 법적 대응이 가시화하고 있는데다 해외 반도체 업계까지 삼성전자 사태 영향이 확산되면서 'K-노조발 성과급 갈등'이 글로벌 빅테크 산업의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삼성그룹 초기노조통합삼성전자지부(초기노조)는 이날 오전 기준 임

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율이 90%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초기노조 조합원의 약 80%가 DS부문 소속인 만큼 업계에서는 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최종 결과는 27일 오전 발표될 예정이다.

총파업 위기는 잦아드는 분위기지만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논란은 삼성 계열사로 확산되고 있다. 삼성SDI의 경우 올해 OPI 지급률이 0%에 그쳤다. 삼성전자와의 보상 격차가 부각되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삼성후자"라는 자조 섞인 반응까지 나온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미 지난 4월 노사가 임금·성과급 협의를 마무리한 상태다. 삼성전자처럼 재협상 요구가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내부 분위기는 복잡하다. 최근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사내 주택대출

제도 시행 시점을 묻는 문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오는 6월 중 세부 운영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삼성전기 내부에서도 성과급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올해 1분기 분기 기준 최대 매출(3조2091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증권가에서는 연간 영업이익이 1조4000억~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성과급(OPI) 지급률은 2023년 연봉의 1%, 2024년과 올해는 5~6% 수준에 머물렀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로 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삼성전기 노조는 과한 노조가 아니어서 별도 교섭

동력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같은 노사 문제를 넘어 법적 분쟁으로도 번지고 있다. 수원지법은 이날 동행노조가 제기한 찬반투표·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총파업 봉합 가능성이 커졌지만 주주단체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합의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며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이 나온 만큼 향후 대응 방향과 소송 시점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주주총회 승인 없이 명문화할 경우 배당권 침해와 상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 내부에서는 오는 7월 지급 예정인 성과급 축소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직원 반발이 이어지

고 있다.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삼성전자 사례와 비교하는 반응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1987년 창립 이후 사실상 무노조 체제를 유지해온 TSMC 내부에서 집단 대응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언급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레딧(Reddit) 등 미국 IT 업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삼성전자 사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AI 산업 성장 과정에서 기술 인력 보상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기업 이익 배분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다른 이용자들은 반도체-데이터센터 투자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성과급 확대가 기업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구명범 기자 koojia@tee



metro

북미 입맛 잡은 비비고·뚜레쥬르... 'K-푸드' 영토 넓힌다

더 CJ컵 바이런 넬슨

비비고, 스타세프 협업 메뉴 선봬
CJ제일제당 '자리' 전통주 카테일
뚜레쥬르, 클라우드 케이크 포토존
한국식 베이커리 제품력 입증

CJ그룹의 식품 계열사들이 세계 최대 식품 시장인 미국에서 K-푸드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글로벌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CJ제일제당과 CJ푸드빌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맥키니 TPC 크레이그 랜치에서 열린 PGA 투어 정규대회 '더 CJ컵 바이런 넬슨(THE CJ CUP Byron Nelson, 이하 더 CJ컵)'에서 대규모 복합 식문화 공간을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식품계열사는 대회장 내 마련된 CJ그룹 통합 체험관 '하우스 오브 CJ(HOUSE OF CJ)'를 필두로 각 브랜드의 핵심



7번홀 비비고 컨세션에서 경기를 즐기고 있는 관람객들. /CJ제일제당

경쟁력을 집약한 메뉴와 현지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 글로벌 갤러리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비비고, '미식'과 '지속가능성' 겸비
CJ제일제당은 글로벌 K-푸드 브랜드 '비비고'를 앞세워 대회의 미식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곳은 7번홀에 마련된 캐주얼 다이닝 콘셉트의 '비비고 컨세션(Concession)'이다. 이곳에서는 국내의 유명 스타 셰프들이 비비고 제품을 재해석한 차별화된 콜라보 메뉴를 현장에서 직접 선보이며 '맛집'으로 격찬을 받았다.

넷플릭스 예능 '후백요리사'로 이름을 알린 유용욱 셰프(유용욱바베큐연구소)의 '김치 삼겹살 타코'를 시작으로 뉴욕 한식 파인 다이닝 '아토믹스' 박정현 셰프의 '소바바 치킨 라이스', 미국 인기 요리 프로그램 '아이언 셰프' 우승자 보 맥밀런 셰프의 '레드 드래곤 소스 만두' 등이 이어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 미국 시장 출격을 앞둔 CJ제일제당의 프리미엄 증류주 브랜드 'jari(자리)'를 활용한 전통주 기반 카테일 4종이 더해지며 한식의 스펙트럼을 넓혔다. 간편하게 음식을 구매할 수 있는 17번홀 '그랩 앤 고(Grab and go)' 부스 역시 매운맛 트렌드를 반영한 메뉴들로 인기를 모았다.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ESG) 비전도 돋보였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윈컵(WinCup)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독자 개발한 생분해성 소재 'PHA' 코팅 컵과 빨대 등을 현장에 전면 도입, 미세 플라스틱 없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제시하며 현지 관람객들의 찬사를 받았다.

◆뚜레쥬르, 북미 베이커리 시장 공략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는 브랜드 슬로건인 'Celebration in Every Day(매일 맞이하는 축제)'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체험형 콘텐츠로 현지인들의 감성을 파고들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미국 뚜레쥬르의 메가 히트 상품인 '클라우드 케이크(Cloud Cake)'를 대형 오븐제로 구현한 포토존이다. 다양한 파티 소품과 함께 실시간 S

NS 인증샷 릴레이가 이어지며 축제 분위기를 주도했다.

특히 현지 정서를 겨냥한 '5월 생일자 축하 프로그램'은 현장 분위기를 정점으로 이끌었다. 당첨자에게 부스 전역에 울려 퍼지는 생일 축하 노래와 함께 케이크를 증정하자 갤러리들이 다 함께 노래를 부르는 이색적인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제품력에서도 확실한 관정승을 거뒀다. 단팻빵, 진한 우유 크림빵 등 한국식 베이커리 특유의 부드러움과 촉촉한 식감을 내세운 대표 메뉴들과 우베 라떼, 말차 라떼 등 현지 인기 음료들이 조기에 매진됐다. 아울러 CJ푸드빌이 함께 운영한 스낵 컨세션 부스 '뚜루미' 역시 닭강정, 핫도그 등 글로벌 감각을 접목한 K-푸드 스낵으로 재방문율을 높이며 인기를 끌었다.

◆스포츠·문화 결합한 글로벌 축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더 CJ컵이 단순한 스포츠 후원을 넘어 CJ 식품 계열사들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한층 강화하는 전략적 교두보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회사 측은 "더 CJ컵은 스포츠와 미식, 문화가 어우러진 글로벌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며 "미국 시장에서 확인한 K-푸드와 베이커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발판 삼아 앞으로도 차별화된 미식 경험을 지속 제공하고 북미 시장 내 리딩 브랜드로서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KB금융그룹 |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일상이 잠시 멈춰도 KB손해보험과 다시 출발

속상한 일이 생겨도 이상한 일이 생겨도
일상은, 멈춰선 안되지

당신에게 그 어떤 일이 생겨도
일상의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KB손해보험이 곁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일상을 지키는 힘 | KB손해보험]

“스타벅스 고의성 입증 못해”

신세계, 5·18 폼페 마케팅 진상조사
직원 5명 중 3명 휴대폰 제출 거부
사내 결재라인 '검증 공백' 드러나
탱크 텀블러 명칭·용량 논란 해명

신세계그룹이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민주화운동 폼페 마케팅 논란과 관련한 자체 감사에서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룹은 법적·절차적 한계로 규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향후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의도성이 드러날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세계그룹은 26일 서울 강남구 조선펠리스 호텔에서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견은 정몽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 직후 진행됐다.

◆5명 중 3명 휴대폰 제출 거부
신세계그룹 전담실 감사조직은 논란이 불거진 다음 날인 지난 19일부터 일주일 간 스타벅스코리아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메일, 노트북 포렌식, 교차 면담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해당 이벤트가 특정 목적을 갖고 고의로 기획됐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집중했다.

전산진 신세계그룹 경영총괄 부사장은 “조사 결과 해당 직원과 임원진이 고의성을 갖고 마케팅을 기획한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회사 차원의 조사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마케팅을 기획한 커머팀 직원 5명 중 ‘탱크데이’ 명

칭을 제안한 직원을 포함한 3명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사내 메신저 대화 기록이 일주일만 저장되는 시스템 특성상 초기 기획 단계의 대화 내용을 복원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사내 결재라인의 '검증 공백'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해당 마케팅은 실무자 기안 이후 팀장, 전략기획본부장, 대표이사까지 4단계(결재 라인 총 7명)를 거쳤으나, 그 누구도 '5월 18일에 탱크데이는 안 된다'고 지적하지 않았다. 일부 결재권자는 첨부파일조차 열어보지 않고 관행적으로 승인했으며, 과거 진행되던 법무팀 검증 프로세스도 생략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서 확산중인 의혹 해명
‘탱크 텀블러’ 명칭과 503ml 용량 논란과 관련해서는 해당 제품이 대만 제조사가 몰탱크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또 503ml 용량은 17온스(oz)를 환산한 수치로 해당 제품은 2023년부터 호주와 태국 등 해외 시장에서도 동일한 규격으로 판매돼 왔으며 특정 인물의 수인번호 등을 암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책상에 탁’, ‘한손에 착’ 등의 문구에 대해서는 기존 이벤트 문구를 참고해 윤율감을 고려하거나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추천을 받아 실무진 차원에서 제작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문구는 경영진에 별도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신원선 기자





2026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이동통신, IPTV 부문 공동 1위



로밍 5G 커버리지 1등



통신사 최초 5G/LTE 통합요금제 및
모바일, 인터넷, 통합 상품 올인원 출시



2026 서비스품질지수(KSQI)
고객센터 상담품질평가 1위



2026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통신 멤버십 부문 수상

고객의 이야기로 유플러스가 바뀌었습니다

유플러스는 고객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좋았던 경험은 기준으로 삼고
불편했던 순간은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쌓인 이야기는
어느새 유플러스가 인정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일상을 더욱 심플하게 바꿔가겠습니다

일상을 심플하게

Simply. U+

李 “핵추진잠수함, 한반도 평화·안보 책임지겠다는 의지”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개최
2030년 핵잠 진수하고 해군 배치
AI·무인전투체계 군대 전환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대 중반까지 핵추진잠수함(핵잠)을 진수한 뒤 해군에 본격 배치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26일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스스로 지키는 힘,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이라는 슬로건 하에 국방·안보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을 전방위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력 건설에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첫 번째 안건으로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기본 계획 발표를 들은 뒤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추진잠수함 관련 합의를 이끌어낸 후, 지난 7개월 동안 국방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완성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보고한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에는 핵추진잠수함 획득과 운용을 위한 추진 원칙, 국제사회에 대한 핵 비확산 의무 이행 약속,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통한 자주국방 의지와 국가산업 발전 구상 등이 포함됐다.

또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핵추진

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에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 해군에 배치하는 ‘국가전략사업 정보 N 프로젝트(Next Generation, Nuclear-powered, Neo technology)’가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은 한반도의 평화·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라며 “나아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두 번째 안건으로 확고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우리 군 주도의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병력지원 급감 등 변화하는 국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회복과 AI·무인전투체계 군대로의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전작권 회복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이 논의됐고, AI·무인전투체계 군대로의 전환과 관련해서 변화된 전쟁양상과 우리 군의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 군대로의 전환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 전 시작전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겠나”라며 “국가가 스스로 방어하는, 즉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완성된 국가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회복은 자주국방의 핵심요소로서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 그 위상을 더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가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현대전 양상도 급변하고 있다”

며 “단순한 병력 숫자 우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상황을 판단하고 드론과 로봇이 전투를 치르는 미래형 전장으로 진화하는 시대에는 우리의 기술과 무장력이 핵심적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도 이에 발맞춰서 국방 전환에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미래전에서 언제나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스마트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미래국방전략위는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대한민국 국방의 내일을 직접 설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 전문성과 창의성이 정부 실행력과 결합될 때 더 큰 시너지를 내게 될 것”이라며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논의되는 내용을 각별하게 챙기고 관련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이 대통령을 비롯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 관계부처 장관, 각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잠수함 현역·예비역 승조원, 조선 및 원자력 업계 관계자, 해군사관학교 생도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국힘 지원 나선 박근혜… 보수 표심 흔들까

9년 만에 정치 광풍 행보
여권 “영향 제한적”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9년 만에 정치 행보에 나섰다. 과거 ‘선거의 여왕’이라 불렸던 박 전 대통령이 보수 결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여권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 대구 칠성시장에서 찾은 것으로 정치 행보를 재개한 뒤, 25일엔 충청권을 찾아 국민의힘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전성인 옥천군수 후보 등과 지역 유세 현장을 찾았다. 또 27일엔 부산·울산

·경남 지역을, 28일에는 강원 지역을 찾아 보수 유권자 투표 독려에 나선다.

정치적 고향이자 현 거주지인 대구·경북(TK)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방문하면서 광풍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 전면 등판은 지난 2017년 국정 농단 사태로 탄핵당한 이후 9년 만이다.

정치권에선 박 전 대통령이 TK 외 다른 지역을 도는 것을 두고 사실상 ‘선대위원장’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대선·총선 등 다른 전국단위 선거보다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 경우 각 당은 고령 지지층만 투표장에 끌어들여는 전략을 쓴다. ‘집토끼’가 더 많이 나오는 쪽이 이기는 게 지방선거라는 의미다. 현재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굳건하지

않은 데다 ‘윤여계인’ 논란 등까지 있기에 지지층 결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당 대표에 버금가는 인지도가 있는 이들이 선거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여러 광역단체장 후보 캠프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한 것도 비슷한 이유라는 것이다. 이에 과거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박 전 대통령의 등판은 현 지도부에 비판적인 보수층 표심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가능성이 나온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지 오래됐고, 탄핵을 당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는 관측도 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등판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역결집을 유도할 것이라 의견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충남 공주시 산성시장을 찾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등판에 대해 “국민의힘에 마땅한 리더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선거에 큰 반향을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 대변인은 추미에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이와 관련해 “국정농단 주인공으로 평생 국민에게 사회해도 모자라는데 선거판을 돌아다니다.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공유하는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민주 “철근 누락 책임” v 국힘 “정원오 의혹” 맞붙

행안위서 서울시장 선거 대리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가 ‘서울시장 선거’ 대리전의 양상으로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대한 책임론을 펼쳤고, 국민의힘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주폭해 외출장 등을 중심으로 공세를 퍼부었다.

26일 여야는 행안위 질의 시작 전부터 각 후보를 비난하는 피켓 부착으로 갈등을 빚었다. 이에 행안위원장인 권철승 민주당 의원의 요구로 국민의힘 위원들이 피켓을 떼면서 회의가 재개됐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무단 설계 변경, 부실시공, 과하중, 감리 부실”을 거론하며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과) 삼성역 철근 누락 사

태와 너무 유사하다”고 했다. 그는 “제2의 삼풍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나”라며 “서울시 책임”이라고 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대안을 같이 만드는 게 상식”이라며 “뻔뻔하게도 서울시는 그것을 안 해놓고도 이제 와 하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원오 후보의 주취 폭행 사건과 야기씨당 기부채납 의혹, 칸쿤 출장 등을 거론하며 맞섰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 주취 폭행 사건과 관련, “(당시 정 후보가) 술에 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그런데 문제가 되니까 ‘5·18 관련 시비가 붙어 시민과 경찰을 폭행했다’고 이야기한다”며 “기억이 안 난다

는 사람이 왜 5·18 관련 이야기를 하나”라고 지적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당시 ‘아기씨 굿당’이라는 무속 시설을 아파트 조합이 지었는데, 성동구청에서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하다가 안 받아서 준공이 지연되고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무속 시설을 구청이 기부채납한다는 건 상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의 (구청장 시절) 출장 보고서를 보면 칸쿤 일정에만 관련해 아무런 구체적 세부 내역이 없다”며 “다른 일정에 있어서는 사진도 있고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칸쿤에서는 뭘 했는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각 후보를 향한 행안위 출석 요구도 나왔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정원오·오세훈 후보, 선거 일정 중단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 방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 운동을 잠정 중단하고 26일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공사 사고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정원오 후보 캠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후보가 선거 운동을 잠정 중단한다”며 “사고 수습이 최우선으로, 즉시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후보 캠프도 공지를 내고 “오후 보는 사태 파악 및 대응을 위해 이 시간 이후 금일 유세 일정을 잠정 중단한다”고 했다.

두 후보는 사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관계 당국의 신속

한 구호 조치를 촉구했다.

정원오 후보는 자신의 SNS에 “지금은 무엇보다 빠른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며 “관계 당국은 추가 피해를 막고, 구조와 현장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썼다.

오세훈 후보도 SNS에 “시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서울시와 관계 당국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구호 조치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적었다. 이어 “현장 작업자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며 사태가 온전히 수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수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32분쯤 철거 중이던 서소문 고가차도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Shinhan

끝없는 가능성의 시작

더 높이 오른 숫자만큼
더 커진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신한투자증권이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더 높게, 더 크게
신한투자증권과 함께.

[투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주식>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주식>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주식)은 <자산가격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국내 주식거래시 모바일 기준 표준수수료는 0.1882276% ~ 0.1891639%(KRX, NXT 포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XT(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대체거래소(ATS : Alternative Trading System)입니다.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6-0818호 (2026.05.18~2027.05.17)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2389호 (2026.05.18~2027.05.17)

 신한투자증권

“외국인 주식 매각·환전… 당분간 ‘원화 약세’ 이어질 것”

美-이란, 평화협상 마무리 단계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회복세에도
원·달러 환율 1500원대 고공행진

‘중동전쟁’ 종료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가 회복되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달러당 1500원을 넘기며 원화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 실현과 환전 수요가 이어지면서 원화값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504.3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거래일 증가인 1517.2원과 비교해 12.9원 내렸지만, 7거래일 연속으로 달러당 1500원을 넘겼다. 환율이 7거래일 연속으로 1500원을 넘긴 것은 세계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이날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가 회복됐지만, 원



서울 하나은행 위변조센터에 원화와 달러화가 함께 놓여 있다.

/뉴시스

화의 강세는 제한됐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미국과 이란이 적대행위 중단 및 호르무즈해협 정상화를 포함한 양해각서(MOU)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양해각서에는 향후 30일간 호르무즈해협 선박 운항 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2단계 핵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란과의 합의는 위대하고 의미 있는 합의가 되거나, 아예 없을 것”이라면서 “(이란의) 농축우라늄은 미국으로 넘어진 뒤 폐기되거나, 더 바람직한 방안으로는 이란과의 협력 및 조율을 통해 현지 혹은 다른 장소에서 폐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는 종전 협상의 전제조건으

로 이란의 핵 개발 일시 중단과 저장된 농축우라늄의 미국 이전을 주장해 왔다. 트럼프가 농축우라늄 처리 문제에서 한발 뒤로 물러난 만큼, 종전에 대한 시장 기대감은 더 커졌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불확실성을 겪었던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주요국의 증시도 빠르게 상승 전환했다. 이날 코스피도 사상 최초로 8000선을 넘겨 장을 마감했다.

정부는 위험자산 선호 회복에도 원화의 약세가 지속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 실현 및 환전 수요에 따른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한국 자산평가액이 높아지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상반기에 주식을 110조원 정도 팔았다”라며 “(주식을) 판 뒤 환전하면서 달러 수요가 증가했고, 일시적으로 외환시장이 1500원을 넘어가는 상황이 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원화가 제한적인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본다. 중동사태

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내국인의 해외 투자 증가 등 원화의 약세 요인도 여전히 있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에 시장이 즉각 반응했지만, 이번 협상에서 실질적으로 진전을 거둔 것은 60일의 합의 뿐”이라며 “혁명수비대의 진의, 이스라엘 등 변수가 남았고, 60일의 휴전 조건도 불명확하다. 협정이 체결되면 시장은 당장에는 환호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현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훈 대신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환율 하락 폭을 제한하고 있고, 국내 경제주체의 해외 투자 확대 추세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원·달러 환율은 팬데믹 이후 저점과 고점이 모두 높아지고 있으며, 연준이 향후 금리를 크게 인하하기 전까지는 원화의 본격적인 강세 전환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안승진기자



metro

금융위 ‘미래 상환능력’ 반영 신용평가 손질

2금융권, 체제 개편 ‘예의주시’
“당국 지시따라 포용금융 속도 조절”
“저신용자 대출 확대… 건전성 우려”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체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2금융권이 관련 논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과거 연체 이력보다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과 비금융 데이터를 반영하는 방향의 신용평가 체제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업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2금융사는 자체적으로 신용평가체계(CSS)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당국의 신용평가 체제 개편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2금융을 중심으로 중금리 대출 확대와 신용평가 체제 개편을 본격화할 것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포용금융 추진단을 출범하고 중금리 대출 시장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신용평가체계 개편은 기존의 연체 이력 중심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과 성장 가능성 등 비금융 데이터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2금융권에서는 우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업계에서 포용금융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 “사내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대안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긴 했으나, 당국의 의지에 따라서 속도나 범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금융사 내부에서도 이를 구체화하려면 최소 반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관계자 역시 “당국이 포용금융 추진단을 꾸리면 저축은행의 참여 범위와 정도가 정해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개편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건전성 부담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신용평가체계 개편으로 중저신용자 대출이 늘어날 경우 개별 금융사의 연체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결국 신용평가 모델에 비금융 데이터를 얼마나 넣느냐의 문제”라면서 “이렇게 되면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대출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중금리 대출이 줄어든 것도 결국은 건전성 문제라는 시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의 중금리 대출 잔액은 27조81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1000억원 줄어 들었다. 저축은행의 지난 1분기 민간 중금리 대출 규모는 1조72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232억원 감소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우선 서민경제가 좋지 않다”면서 “여기에 중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대출을 해주려면 기대 수익이 예상 부도율보다 높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 대출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가계부채 증가 관리 문제까지 얹히면서 중금리 대출이 쉽게 확대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용평가체계 개편 논의는 금융이력 중심의 기존 평가 방식이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지난주 금융위원회와 정책실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융의 구조조정”이라는 3부작 글을 올리고, 한국 금융의 신용대출 시스템의 한계를 꼬집었다.

김 실장은 “신용등급은 복잡한 생애를 숫자로 압축한 것으로, 정교하게 요약된 과거의 잔상일 뿐”이라며 “신용등급 사이의 공백은 가운데만 행하게 뒀던 도넛 같다”고 지적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현대건설 vs DL이앤씨 ‘압구정 5구역’ 격돌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
현대 2·3구역, 삼성 4구역 수주

서울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강남구 압구정의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압구정 2·3구역은 현대건설, 4구역은 삼성물산이 수주한 데 이어 오는 30일 압구정 5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전일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해 압구정 2구역을 수주한 바 있다.

압구정 3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의 현대아파트 1~7차와 10·13·14차, 대림빌라 등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 5조5610억원 규모로 단일 도시정비사업 기준으로 최대다. 지하 7층~지상 최대 66층, 총 5175세대 규모의 초대형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압구정 3구역은 ‘압구정 현대’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사업”이라며 “최선을 다해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고 미래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하이엔드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지난 23일 압구정 4구역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총 공사비는 2조1154억원 규모다.

압구정 4구역은 압구정동 일대 현대 8차, 한양 3·4·6차 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지하 5층~지상 최고 67층, 8개 동, 총 1662가구로 조성된다.

삼성물산은 하이테크 건축의 거장인 노만 포스터가 이끄는 ‘포스터 앤드 파트너스(Foster+Partners)’, 조경 예술의 대가 피터 워커의 ‘PWP’와 협업을 통해 압구정 4구역을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물산은 조합원 전 세대 한강 조망과 함께 전용률 73.31%, 세대당 4.15평의 테라스 면적을 포함한 평균 21.83평의 서빙 면적을 추가로 제안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포스터 앤드 파트



삼성물산의 압구정 4구역 재건축 투시도(위)와 현대건설의 압구정 3구역 투시도. /각사

너스와 함께 설계한 이번 제안은 외관의 화려함을 넘어 실제 거주하는 조합원들의 삶의 질을 궁극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검증된 시공 역량과 압도적 실행력을 바탕으로 압구정에서 가장 빠른 입주를 실현해 압구정 4구역을 세계가 동경하는 글로벌 시그니처 단지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압구정 5구역은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가 열린다. 현재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수주전에 뛰어들어 경쟁 중이다.

현대건설은 압구정 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입찰에 참여하며, 단지명으로 ‘압구정 현대 갤러리’를 제안했다. 대한민국 최고 주거지의 상징인 ‘압구정 현대’와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의 상징 ‘갤러리’를 결합한 이름이다. 앞서 하이테크 건축의 선구자인 세계적 설계사 RSHP와의 협업을 밝힌 바 있으며, ‘OWN THE NEW’ 콘셉트의 비전 필름을 공개했다.

DL이앤씨 역시 압구정 5구역 수주를 위해 글로벌 토퍼 기업과 손을 잡았다. 초고층 구조 설계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가진 영국의 ‘에어럽(Arup)’과 골조 시공 제어 분야 글로벌 기업인 오스트리아의 ‘도카(Doka)’ 등과의 전략적 협업을 진행했다. /안심미 기자 smahn1@

은행 대출 연체율 0.56%… 0.06%p 하락

금감원, 3월 말 신규연체 2.7조
은행 연체채권 정리규모 확대 영향

올해 3월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전월 대비 0.06%포인트(p) 떨어졌다. 주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규모 확대로 연체율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0.56%로,

전월 말 대비 0.06%p 내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0.03%p 올랐다.

3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약 3000억원 줄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4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원 늘었다. 같은 기간 신규연체율은 (2026년 3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동년 2월 말 기준 대출잔액)은 0.11%로 전월(0.12%)보다 소폭 내렸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이 모두 전월보다 내렸다. 기업대출 연

체율은 0.68%로 전월 대비 0.08%p 내렸고, 특히 중소기업대출이 0.11%p, 중소기업대출이 0.14%p 하락을 기록해 하락폭이 컸다. 다만 대기업대출은 0.03%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로, 전월 대비 0.05%p 내렸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02% 내렸고, 주택담보 제외 가계대출은 0.05%p 하락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매각,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연체 우려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부실로의 전이를 방지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

아틀라스 막아선 노조... 현대차그룹, 현장·생산혁신 제동

〈휴머노이드 로봇〉

현대차그룹, 아틀라스 본격 양산 노조, 단체협약 AI·로봇 조항 신설 업계, 글로벌 경쟁력 악화 우려



현대차 노사가 지난 6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6년 임금협상 상견례를 열었다. /현대차

미국 보스턴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정밀 작업 능력과 최근 파이어 AI의 로봇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는 모습 등 산업 현장 곳곳에서 로봇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휴머노이드 대표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아틀라스의 본격 양산을 앞두고 노사 갈등으로 사업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직면했다.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카드로 수조 원대 성과급 요구는 물론 로봇·인공지능(AI) 도입 속도를 늦추기 위한 요구안을 내놨다. 현재 미국 공장을 중심으로 아틀라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노조는 현장 투입을 반대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이날 6차 교섭에 나섰지만 성과급과 신규 채용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가 내건 요구안은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상여금 800% 인상, 정년 연장과 함께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이다. 조합원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경쟁력 강화 기여도가 컸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대차의 지난해 순이익은 10조3648억원으로, 노조 요구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성과급 총액은 약 3조1000억원에 이른다. 현대차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2조500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3500만~40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정규직 채용이다. 노조는 매년 발생하는 정년퇴직 자연 감

소를 막고 국내 공장의 생산 확대를 위해서는 대규모 정규직 신규 채용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생산 현장의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을 늦추기 위한 대응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생산 현장에 아틀라스를 2만5000대 이상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또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틀라스의 생산 현장 투입과 양산 체제 구축을 위한 전담 조직도 꾸렸다. 그러나 노조는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들여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며 단체협약에 AI·로봇 도입 관련 조항을 신설해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성과급 확대와 정규직 신규 채용, AI·로봇 도입 반대가 동시에 이어질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악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불확실성이 확

대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미국발 관세 부담과 중동 갈등, 중국 전기차 업체의 공세로 현대차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8% 감소했다. 지난 4월 내수 판매는 5만4051대로 전년 동월 대비 19.9% 줄었으며 같은 기간 생산 역시 14만4399대로 16.2% 축소됐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노조가 강조하는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은 요구 사항이 될 수 없다"며 "아틀라스 투입은 현재 생산직의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노동강도가 강하거나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투입해 노동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자동차 산업은 인건비 증가와 강성 노조 등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며 "이같은 환경이 지속될 경우 생산 거점을 해외로 이동하는 흐름이 빨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SK하이닉스, 차세대 HBM 솔루션 공개

HBM 내부에 일체형 냉각요소 적용 고온·고부하 환경에서도 안정적 동작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 내부에 냉각 구조를 적용한 차세대 패키징 기술을 공개했다. 인공지능(AI) 서버용 반도체의 고성능화로 발열 관리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차세대 HBM 대응 기술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SK하이닉스는 26일 HBM 패키지 내부에 일체형 냉각 요소를 적용한 'iHBM(Integrated HBM)' 기술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은 발열이 집중되는 D2D PHY 영역 내부에 열 제어 구조물인 'ICE(Integrated Cooling Elements)'를 삽입해 패키지 내부에 별도의 열 방출 경로를

만드는 방식이다. 회사는 이를 통해 기존 대비 열저항(Thermal Resistance)을 30% 이상 낮추고 고온·고부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동작 특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ICE는 전기는 통하지 않으면서 열전도율이 높은 실리콘 소재 기반 구조물이다. 기존에는 HBM 상단 방열판 등을 중심으로 열을 제어했다면, 이번에는 열이 집중되는 내부 영역 자체에 냉각 구조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SK하이닉스는 이번 기술에 자사 HBM 양산 공정인 어드밴스드 MR-MUF 기반 웨이퍼레벨패키지(WLP) 기술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기존 양산 공정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도 추가 냉각 구조를 구현해 양산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는 설명

이다. 업계는 AI 서버용 GPU와 가속기 성능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HBM 발열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추수 증가와 데이터 처리량 확대에 따라 열 제어 기술이 차세대 HBM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SK하이닉스는 향후 iHBM 기술을 차세대 HBM 제품에 적용해 AI 메모리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강욱 SK하이닉스 PKG 개발 담당 부사장은 "iHBM은 메모리 설계 역량과 첨단 패키징 기술을 결합해 개발한 발열 최소화 솔루션"이라며 "AI 시대 고객이 요구하는 열관리 수준과 시스템 안정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삼성전자 외부 생성형 AI 도입 추진

삼성전자가 자체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삼성 가우스'에 이어 글로벌 빅테크의 외부 생성형 AI까지 사내 업무 환경에 도입한다. 내·외부 AI를 병행 활용해 임직원 업무 효율성과 시장 대응 속도를 높이고 전자적인 AI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DX(다바이스경험)부문 임직원을 대상으로 6월 중에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를 공식 도입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글로벌 빅테크가 제공하는 최신 생성형 AI를 임직원 업무에 결합해 의사결정 속도와 업무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제품 기획·개발·마케팅 등 전 영역에서 글로벌 시장 변화에 더욱 민첩하게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생성형 AI는 단순 업무 보조를 넘어 기업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에 따르면 기업의 AI 활용이 장기적으로 최대 4조4000억달러 규모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차현정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지분 추가 매입

104만주 취득... 항공우주 사업 박차를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꾼 바 있다. 올해 말까지 약 5000억원을 투입해 KAI 지분율을 8%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밝힌 상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을 추가 매입하며 항공우주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상방산 중심의 사업 구조를 항공방산과 우주 분야로 넓히는 가운데 완제기 체계 역량을 보유한 KAI와의 협력을 강화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확보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AI 주식 104만7635주를 추가 취득해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보유 지분율을 기존 5.09%에서 6.17%로 확대했다고 공시했다. 보유 주식 수는 496만4000주에서 601만1635주로 늘었다.

이번 매입은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장내 매수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NH투자증권과 체결한 특정금융선택 계약을 통해 KAI 주식을 순차적으로 사들였으며 취득 자금 약 1716억원은 자체 보유 자금으로 마련했다.

한화그룹은 앞서 KAI 지분 보유 목적

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꾼 바 있다. 올해 말까지 약 5000억원을 투입해 KAI 지분율을 8%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밝힌 상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AI 지분을 늘린 배경에는 완제기 분야로 항공우주 사업 범위를 넓히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 레이더, 항공전자, 우주 발사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KAI는 KF-21 전투기, FA-50 경공격기, 수리온 헬기, 무인기 등 항공기 체계 개발과 생산 역량을 갖춘 국내 유일의 완제기 제조업체다.

업계에서는 양측 협력이 확대될 경우 한화의 엔진·전자장비·우주 기술과 KAI의 체계종합 역량이 결합해 항공기와 위성, 발사체를 아우르는 항공우주 사업 구조 구축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정부의 KAI 지분 매각이나 민영화 논의 가능성을 고려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전자, 유럽 B2B 공조시장 공략 속도

폴란드 4개 도시에 히트펌프 공급

유럽 내 탄소중립 정책 확산으로 친환경 난방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폴란드 비아위스토크를 비롯한 4개 도시에 조성되는 대규모 주거단지에 고효율 히트펌프 솔루션을 공급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관리 플랫폼 '스마트싱스 프로'를 앞세워 유럽 기업간거래(B2B) 공조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폴란드의 대표적인 에너지 공급업체 '에코파크' 주도로 추진되는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프로젝트에 고효율 히트펌프 솔루션을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사는 이번 프로젝트에 AI 기능을 강화한 고효율 대형 히트펌프 실외기 'DVM S2'와 히트펌프 실내기 'DVM 하이드로 유닛'을 공급한다.

DVM S2는 '액티브 AI' 기능이 탑재돼 실시간으로 환경을 학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최적의 난방 성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효율 히트펌프 실외기 'DVM S2'. /삼성전자

실내기인 DVM 하이드로 유닛은 실외기인 DVM S2와 연결돼, 최대 80°C의 온수와 난방을 제공한다. 이 제품은 난방에 사용하는 냉매를 활용해 온수까지 공급하기 때문에 화석연료 기반의 보일러 대비 이산화탄소를 발생이 적다. 전기로 동작하기 때문에 기존 보일러 대비 사용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도 줄여준다.

삼성전자 DA 사업부 임성택 부사장은 "삼성전자만의 차별화된 히트펌프 기술과 통합 관리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B2B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로템, 유·무인복합 전장기술 고도화

피지컬 AI 기반 국책과제 잇달아 수주

현대로템이 피지컬 인공지능(AI) 기반 무인로봇 핵심 국책 과제 2건을 잇달아 수주하며 지능형 유·무인복합 전장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로템은 산업통상부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각각 발주한 '자연어 명령 기반 이종·다중 로봇 통합 관제 시스템'과 '피지컬 AI 기반 통합 시뮬레이터 및 모듈형 로봇 시스템' 국책 연구개발(R&D) 과제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 과제는 여러 종류의 무인로봇을 언어와 문자로 통합 제어할 수 있는 관제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무인로봇을 원격 장치로 각각

조종해야 했지만 통합 관제 시스템이 개발되면 최소 운용 인력으로 다수의 무인 플랫폼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다.

현대로템은 이 기술을 주력 무인 플랫폼인 다목적무인차량 HR-세르피와 다족 보행로봇에 적용할 계획이다. 여러 대의 무인차량과 보행로봇을 군집 단위로 운용할 수 있는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고 방산 현장에 맞춰 기술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현대로템은 지난달 ADD로부터 다목적무인차량의 가상 시험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연구과제도 수주했다. 이 과제는 HR-세르피의 실제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군 시험평가에 활용할 디지털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관희 기자

중진공, 성심당 고속성장 숨은 조력자... 인재매칭 역할 '톡톡'

1956년 밀가루 두 포대로 출발
대전 향토빵집 작년 2629억 매출
매장·공장·배송 인력수요 확대

기업인력애로센터 채용지원 활용
생산·조리 등 직무별 구직자 연계
2022년부터 작년까지 72명채용 지원
우수 중소기업 적극발굴 맞춤형 지원 강화
기부금 24억 착한기업 가치 확산

밀가루 두 포대로 시작해 2600억원이 넘는 매출로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전국 빵집 1위를 기록한 성심당의 성장에는 '사람'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인재를 묵묵히 연결한 중소기업인력애로센터의 숨은 조력 역할이 컸다.

2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성심당은 1956년에 대전역 앞의 천막집으로 된 찜빵집에서 태동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창업주 임길순·한순덕 부부는 당시 대전 대흥동성당에서 원조 받은 밀가루 두 포대로 찜빵을 만들어 팔았다.

6·25 전쟁 직후 배고픈 이들의 배를 채우던 성심당은 최근 들어 빠르게 성장했다.

성심당을 운영하는 로쏘씨는 지난해 262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도 1938억원 매출과 비교하면 1년새 36%나



성심당에서 직원들이 딸기시루를 만들고 있다.

성장했다. 스테디셀러인 튀김소보로 등 뿐만 아니라 딸기시루를 비롯한 제품들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누린 결과다. 대표적인 '빵지순례' 장소인 성심당은 2021년만 해도 매출이 628억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급격한 성장에는 안정적 인력 확보가 절실했다. 제품 생산, 매장 운영, 배송, HACCP 공장 근무, 외식 조리 등 다양한 현장 직무에서 지속적인 인력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로쏘는 중진공의 기업인력애로센터를 적극 활용했다. 기업인력애로센터는 구인기업에 채용 상담, 공고 작성, 인재 추천 등을 지원하고, 구직자에게는 1대1 취업상담, 입사지원 컨설팅, 면접 준비,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공공 취업 지원 플랫폼이다.

중진공에 따르면 로쏘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해 총 72명의 채용을 지원받았다.

채용지원은 단순한 인재 추천에 그치지 않았다. 기업인력애로센터는 로쏘의 생산직, 매장관리, 배송, HACCP 공장 근무자, 외식 조리 등 다양한 직무 수요에 맞춰 구직자를 발굴하고, 직무 적합성·조직 적응력·근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천했다. 또한 로쏘의 자사 입사 지원서 양식에 맞춘 이력서 컨설팅을 지원해 구직자의 강점이 기업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같은 맞춤형 지원은 실제 채용 성과로 이어졌다. 기업인력애로센터 추천 인력은 생산 현장과 매장, 외식 조리 등 주요 업무 현장에 배치돼 로쏘의 운영을



성심당에서 일하는 직원이 미소를 짓고 있다.

뒷받침하고 있다. 폭넓은 직무 영역에서 채용이 이뤄졌다는 점은 기업인력애로센터의 매칭지원이 기업의 성장 단계와 현장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진공 관계자는 "성심당의 사례는 지역 우수기업의 성장이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전국적인 브랜드 인지도와 매출 성장만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제품을 만들고, 고객을 만나고, 품질을 관리하고, 서비스를 유지하는 인재를 함께할 때 기업의 성장은 더욱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중진공 기업인력애로센터는 앞으로도 로쏘와 같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기업별 직무 수요에

맞춘 맞춤형 인재 매칭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해 인재 채용 지원을 받길 원하는 중소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중진공 일자리매칭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착한기업' 성심당의 지난해 기부금은 24억원에 달했다.

한국전쟁 시절 흥남부두 철수작전을 통해 남쪽으로 피난을 왔다 결국 대전에 터를 잡은 창업주 부부는 '우리 가족이 살아 돌아간다면, 남은 인생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빵을 만들었다. 이같은 부부의 정신은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라는 경영이념으로 이어졌다.

밀가루 두 포대의 기적이 대전의 문화가 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향토 기업으로 성장한 것이다.

부부의 정신을 이어받은 임경진 대표는 성심당 누리집에서 "우리에게 '빵'이란 생계 유지 수단이기도 하지만 지역 경제와 사랑의 공동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가치이며 '동력'이라면서 "빵으로도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성심당은 앞으로도 빵을 통해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노란우산, 잠자는 공제금 1562억 주인 찾기 나선다

소재 파악 위한 시행령 개정안 의결
통신사에 미청구자 전화번호 요청
문신사중앙회와 가입 확대 협약도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가 생겼지만 전화 등 연락이 안돼 미청구된 공제금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락 두절 상태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위험에 대비해 2007년 9월 도입된 제도로, 올해 3월 기준 가입자 187만8437명, 부금 규모 32조9460억원에

이르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청구되지 않은 공제금이 올해 3월 기준 2만3085건, 금액으로는 총 1562억원에 달하고 있다. 미청구자 상당수가 연락 두절 상태여서 공제금 청구 안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연락 두절 가입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지난해 12월 2일 개정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화번호 요청·제공 절차 및 방법 ▲전화번호 제공 사실 통지 내용 등 세부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중기부와 중기

중앙회는 미청구자가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법 시행일부터 5년간 공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된다. 중진공 박상용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가입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 가입 확대를 위해 (사)대한문신사중앙회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문신사중앙회 회원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양 기관이 노란우산 제도 안내 및 홍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반영구 회장, 패션 타투 등 업종의 1만 9000여 회원사로 구성된 문신사중앙회는 문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제도권 인착을 위해 지난 2019년 설립됐다.

중기중앙회 이창호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이라는 든든한 안전망에 함께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에이스침대가 신세계백화점 서울 강남점에서 6월4일까지 '에이스 헤리츠' 단독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에이스침대
프리미엄 침대수요 공략
헤리츠 팝업 강남서 운영
내달 4일까지 최상위 매트리스 체험

에이스침대가 최상위 매트리스 브랜드 에이스 헤리츠 단독 팝업 행사를 신세계 백화점 서울 강남점에서 오는 6월 4일까지 약 2주간 진행한다. 26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에이스 헤리츠는 60년간 축적한 에이스침대의 침대과학 기술력과 최고급 소재를 결합해 완성한 하이엔드 매트리스 브랜드다. 침대 전문 마스터들의 수작업 공정을 거쳐 생산한다. 블랙, 다이나몬드 플러스,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플러스, 플래티넘 등 총 5개 모델로 구성된 소비자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한다. 차별화된 소재와 완성도 높은 마감에 앞세운 에이스 헤리츠는 올해 1~4월 누계 기준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28.1% 증가하는 등 실적 호조를 이어가며 프리미엄 매트리스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이번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팝업 행사는 늘어나는 수요에 발맞춰 핵심 상권에서 브랜드 점유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했다. /김승호 기자

두산에너지빌리티, 가스터빈 장기 서비스 확대

남부발전 가스터빈 3기 대상 계약
주기적 공급 이어 4800억 부품조달

두산에너지빌리티가 한국남부발전의 신규 가스터빈 발전소 사업에서 주기적 공급에 이어 장기 부품조달계약까지 확보하며 국산 가스터빈 서비스 사업 확대에 나섰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한국남부발전이 추진하는 고양청룡열병합발전소와 하동복합발전소의 가스터빈 3기에 대한 장기 부품조달계약(LTPM)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계약 규모는 총 4800억원 수준이다. 이번 계약은 지난 2월 체결한 가스터빈 공급 계약과 연계된 사업이다.

고양청룡열병합발전소와 하동복합발전소는 모두 2029년 12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해당 가스터빈을 대상으로 고온부품 공급, 재생 정비, 소모성 자재 공급, 기술지원 용역을 수행한다. 재생정비는 가스터빈 주요 부품을 정기적으로 수리·정비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계약 기간은 상업운전 이후 주요 정비 주기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통상 10년 이상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발전소 운영 초기부터 부품 공급과 정비 범위를 확정해 계획정비 일정에 맞춘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원관희 기자 wkh@

한화파워, 캐나다 친환경 에너지 협력 강화

앨버타대와 공동 연구개발 MOU 체결
한화오션 잠수함 사업 산업협력 지원

한화파워가 캐나다 친환경 에너지 협력망을 넓히며 한화오션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지원에 힘을 보탠다. 잠수함 본계약 경쟁이 기술력뿐 아니라 현지 산업협력 조건까지 함께 평가받는 구도로 전개되면서 한화그룹이 에너지 분야 파트너십을 앞세워 캐나다 내 산업 기여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화파워는 지난 22일 (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대학교와 친환경 에너지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한화파워가 보유한 폐열회수발전 시스템, 터보팬발전기(TEG),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 연구 기반과 인재 풀을 갖춘 앨버타대는 기술 고도화와 현지 사업화 검토 과정에 참여한다.

이번 MOU는 한화오션이 추진 중인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과 연계한 산업기술협력(ITB)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됐다. 한화파워는 협력 과정에서 폐열회수발전 기술과 압력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TEG 기술의 복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현대해상의 마음은 어디로 향할까요?

당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험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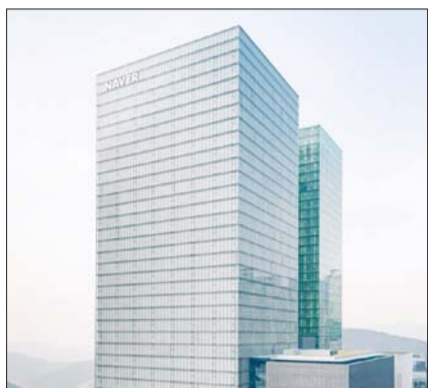


마음이 ♥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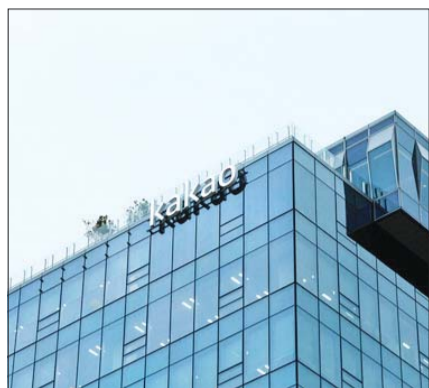
H 현대해상

네카오, 광고사업으로 'AI 투자·수익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네이버, 내달 광고체계 전면개편
일부상품 광고단가 최대 40% 인상
지도 앱서 음식점 광고 노출 확대
카카오, '비즈니스 메시지' 성과
카톡 개편 과정서 광고지면 확장
커머스 연계 광고매출 확대 속도



네이버 사옥 전경. /네이버



카카오 사옥 전경. /카카오

국내 플랫폼 양강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1분기 나란히 호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광고 사업 확대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의 본격적인 수익화 시점이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존 광고 사업을 통해 실적 성장과 수익성 방어에 나섰다

26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오는 6월부터 브랜드 광고 상품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브랜드 광고는 사용자가 특정 브랜드나 제품명을 검색했을 때 검색 최상단에 노출되는 대표 광고 상품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광고 단가 인상이

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상품은 최소 17%에서 최대 40% 수준까지 광고비가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모바일 중심 광고 상품의 인상 폭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모바일 트래픽 비중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광고 효율과 수익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네이버, 지도·검색까지 광고 확대

네이버는 광고 상품 개편과 함께 광고 노출 자체도 확대하고 있다. 최근 네이버 지도 앱에서는 음식점 광고를 지도 위 마커 형태로 노출하기 시작했고, 이달에는

웹 버전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검색과 커머스를 중심으로 플랫폼 체류 시간을 키우는 동시에 광고 접점을 자연스럽게 늘리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AI 검색 서비스 확대 이후에도 당장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영역은 결국 광고라는 점에서 네이버가 기존 광고 사업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본다.

실제 네이버의 올해 1분기 광고 매출은 1조39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했다. 회사는 하반기부터 생성형 AI 서비스와 연계한 광고 모델도 순차 도입할

계획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광고주의 운영 편의성과 성과 최적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카톡 안 광고 더 늘린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톡 기반 광고 확대 전략에 힘을 싣고 있다. 카카오의 올해 1분기 광고 매출은 33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 특히 기업 광고주 대상 '비즈니스 메시지' 광고가 27% 성장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개편 과정에서 신규 광고 지면도 지속 확대하는 분위기다. 지난 15일 업데이트에서는 채팅탭 상단에 새로 추가된 '통화' 영역에 티 형태 광고를 적용했다. 앞서 도입한 피드형 게시물과 숏폼 콘텐츠 역시 광고 확장을 염두에 둔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반기에는 커머스 영역과 연계한 광고 확대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올해 1분기 실적발표에서 "광고 지면 확대와 오픈형 구조 전환을 통해 거래액 대비 광고 매출 비중을 연초 대비 4

배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 투자 부담 속 '광고 본업' 회귀

업계에서는 양사가 AI 투자 확대와 수익성 방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만큼 당분간 광고 사업 의존도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I 서비스는 막대한 서버 투자와 운영 비용이 필요한 반면, 뚜렷한 수익 모델은 아직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기존 플랫폼 광고 사업이 사실상 현금창출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광고 확대에 따른 이용자 피로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YMCA 조사에서는 이용자의 59.2%가 카카오톡 내 브랜드 메시지 광고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했다.

IT 업계 관계자는 "AI 시대에도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 가장 즉각적으로 돈이 되는 사업은 결국 광고"라며 "당분간은 AI 서비스 확대와 광고 수익 극대화 전략이 동시에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NHN클라우드 "내년까지 AI 매출 비중 절반규모로 확대"

AI 풀스택 브랜드 '팩토리X' 공개
GPU 인프라 구축 기간 단축 중요
수령식 냉각으로 장애 발생률 감축



김동훈 NHN클라우드 CEO가 2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AI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NHN클라우드가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사업 비중을 전체 매출의 절반 규모로 확대한다. 기존 클라우드 사업에서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풀스택 AI 전환'을 가속한다는 구상이다.

26일 김동훈 NHN클라우드 최고경영자(CEO)는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CEO는 이날 AI 풀스택 브랜드인 'NHN팩토리X'를 공개했다. 팩토리X는 각 기업에 맞는 AI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물리적 인프라와 GPU 자원 효율을 극대화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여기에 기업

을 위한 AI 에이전트 서비스까지 통합 지원한다. 팩토리X 경쟁력은 운영 시간 단축에서

나온다. GPU 인프라 구축은 최소 52주 수준으로 GPU 서버와 인피넨트 스위치 케이블·GBIC 조달에만 48주가 소요된다. 앞으로는 이 프로젝트 기간을 줄이는 것이 GPU 확보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여기에 구축 난이도가 높은 수령식 냉각 방식을 통해 장애 발생률을 대폭 줄였다. 강민수 NHN클라우드 최고정보책임자(CIO)는 "공랭식일 경우 연간 GPU 장애율은 3.8~5.2% 수준이지만 수령식을 적용하면 1.2~1.8%까지 약 3분의 1로 감소하게 된다"며 "반면 평균 무고장 시간은 18만 시간에서 48만 시간까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GPU 클러스터링 기술과 운영 내재화도 강조했다. 회사는 4080장의 단일 GPU를 하나의 연산 자원처럼 단일 클러스터

로 구성했다. 또 7년 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설계와 구축, 운영, 관제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가장 큰 차별점으로는 GPU를 잘 활용하는 것에 주목했다. 김태형 NHN클라우드 최고기술책임자(CTO)는 GPU 인프라 운영의 현실과 문제점으로 전력 소비와 자원 낭비, 기업별 워크로드 특성의 차이 등을 꼽았다. 김 CTO는 "GPU 라이브와 AI 이지 메이커를 통해 운영 효율과 생산성을 동시에 극대화하는 구조를 구현했다"며 "기업들은 최적화된 AI 에이전트를 모든 업무 프로세스에 녹여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GPU 라이브'는 GPU 활용률을 끌어올리고 유휴 자원을 최소화 하는 플랫폼이다. 고객사는 대시보드를 통해 워크로

드에 따른 GPU 운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AI 이지 메이커를 통해서

는 개발자가 GPU 인프라 복잡성에 신경 쓰지 않아도 코드와 데이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하반기 출시 예정인 '프로젝트X'도 공개했다. 비개발자도 자연어를 기반으로 AI 에이전트를 설계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안성민 NHN엔터프라이즈 CEO는 "AI 시대에서는 자율과 통제가 함께 가야한다"며 "프로젝트 X는 이 두가지를 목표로 모두가 퇴근한 시간 AI 에이전트는 장애를 탐지하고 알람을 보내고 스스로 문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HN클라우드의 성장축은 서비스형 GPU(GPUaaS)와 맞춤형 프라이빗 AI 인프라다. 2023년부터 가동한 광주 국가 AI데이터센터부터 최근 가동한 팩토리X 서울까지 운영 경험에 기반해 AI 인프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

/조민선 기자 msjo@

SKT 'T우주' 유튜브 할인 구독

SK텔레콤이 구독 서비스 혜택을 강화한다.

SK텔레콤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구독 상품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는 광고 없이 동영상 시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저장 및 백그라운드 재생을 지원한다. 유튜브 뮤직은 제외된다.

상품은 구독 서비스 플랫폼 'T우주'를 통해 출시한다. 월 7900원에 정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출시 기념 프로모션도 연다. 내달 30일까지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구독료가 1회 면제된다.

SK텔레콤 프로젝트 이승하 담당은 "고객들이 일상에서 즐겨 찾는 유튜브를 T우주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T우주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는 구독 상품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민선 기자

KT, 실생활 브랜드와 티빙 콘텐츠 결합

티빙 생활 구독팩 선보

KT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구독 상품을 강화한다. KT는 티빙 생활구독팩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구독 상품은 실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브랜드와 OTT 콘텐츠를 결합했다. 티빙 OTT 요금제는 베이직·스탠다드·프리미엄 등 3종이다. 여기에 GS25, 다이소, 올리브영, 카카오 이모티콘 플러스, 스노우 VIP 한달 이용권 중 매월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가격은 1만1500원부터 1만9000원까지다.

출시 기념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생활구독팩 3종을 구독하면 2000원 할인 받을 수 있다. 내달 30일까지는 KT 공식 앱 등을 통해 신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네이버 포인트 2000원권을 제공한다. 일부 매장 가입 고객에게는 티빙 신규 콘텐츠 '취사병 전설이 되다' 굿즈를 한정 수량 증정한다. KT 흥대



모델이 KT 티빙 생활구독팩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KT

에드샵 플러스·광화문 온맛이점 매장만 해당된다.

KT 커스터머서비스본부장 강이환 상무는 "티빙 생활구독팩은 콘텐츠 이용 경험과 생활 혜택을 결합해 고객 만족도를 높인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휴와 차별화된 혜택을 기반으로 고객 일상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카카오프렌즈, KBO 10개 구단 굿즈 선택

키링 인형·핸디 선풍기 등 실용성·재미 요소 함께 담아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프렌즈가 KBO 리그 소속 10개 프로야구단과 함께 한 '2026카카오프렌즈X프로야구단' 굿즈를 26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2023년 프로야구단과 첫 협업을 시작한 이후 매년 콜라보레이션 굿즈를 선보이고 있다. 출시 상품마다 완판 행렬을 이어가며 야구팬들의 호응을 얻었고, 올해 네 번째 협업 시즌을 맞았다.

올해 상품은 야구장 직관은 물론 일상에서도 응원팀 팬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실용성과 재미 요소를 함께 담은 것이 특징이다.

대표 상품으로는 캐릭터 춘식이 각 구단 유니폼을 착용한 키링 인형'을 비롯해 햇빛을 받으면 색상이 변하는 태닝 피규어 키링', 야구장 관람 필수 아이템인 '핸디 선풍기' 등을 준비했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프렌즈가 KBO 리그 소속 10개 프로야구단과 함께한 '2026 카카오프렌즈 X 프로야구단' 굿즈를 출시한다. /카카오

굿즈는 26일부터 카카오프렌즈 공식 온라인스토어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각 구단 공식 판매처에서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오프라인 판매는 매장별로 운영 상품이 다르다. 카카오프렌즈 흥대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10개 구단 전체 상품 라인업을 판매하며, 백화점과 소품물 집점 매장에서는 지역 연고 구단 제품 중심으로 운영한다. /최빛나 기자

삼전·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오늘 상장

국내 최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을 앞두고 자산운용업계 양강인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정면 승부에 나섰다. 코스피200 레버리지 시장의 절대 강자인 삼성자산운용은 현물납입 구조와 대규모 유동성을, 반도체 ETF 시장을 선도해 온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외국인 자금 유치와 현금설정 구조를 앞세워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같은 상품을 두고 서로 다른 전략을 내세운 양사의 승부수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해외 투자 수요 국내로 저보수는 기본, 유동성 ↑”

미래에셋자산운용

외국인 자금 3290억 유치... 경쟁력 자신

“3290.”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대표가 26일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센터원에서 열린 ‘TIGER R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꺼낸 숫자다. 27일 상장하는 ‘TIGER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TIGER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유치한 외국인 투자자 자금 규모다.

김 대표는 “3290억원은 이번 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유치한 외국인 투자금”이라며 “TIGER R ETF 최초 상장 상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다. 상장 이후에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압도적인 유동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번 상품의 경쟁 상대를 국내 운용사가 아닌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설정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홍콩에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이나 미국 엔비디아·테슬라 2배 상품 등에 투자하던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의 원래 취지는 해외로 나가던 투자 수요를 국내로 가져와 원달러 환율 안정에도 기여하는 것”이라며 “글로벌 ETF 전문 투자자 가운데 이번 상품을 통해 처음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기관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두 상품의 상장 규모는 총 1조3390억원이다. TIGER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5920억원, TIGER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7470억원 규모로 상장된다. 총보수는 연 0.0901%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가장 강조한 경쟁력은 유동성이다. 이정한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상무는 “일각에서는 저보수와 유동성의 경쟁으로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대표가 26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 본사에서 열린 TIGER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보지만 저보수는 기본”이라며 “유동성 측면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현금 설정·환매 방식을 채택했다. 이 상품은 “현금 설정 구조에서는 현물과 선물 가격 차이가 발생할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자산을 매도하는 운용이 가능하다”며 “LP 역시 선물 중심으로 헤지할 수 있어 호가 스프레드와 괴리율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운용 역량도 차별화 요소로 제시했다. 최창규 미래에셋자산운용ETF리서치본부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걸으로는 현물형 2배 상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식선물이 100~140% 수준 포함되는 구조”라며 “파생상품 운용 경험이 풍부한 운용사가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주 뒤면 6월 동시만기일이 다가온다”며 “결국 롤오버 과정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비용을 관리하느냐가 장기적으로 상품 경쟁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국내 첫 현물납입형 구조 “숨겨진 비용 절감 효과”

삼성자산운용

업계 최다 25개 AP·15개 LP 계약

삼성자산운용은 자사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강점으로 풍부한 유동성과 숨겨진 비용 절감을 내세웠다.

삼성자산운용은 26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KODEX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2종의 운용전략과 투자 활용법을 소개했다. 이날 김두남 삼성자산운용 고객마케팅부 문장(부사장)은 “타사 상품에 비해, 삼성자산운용의 레버리지 노하우를 충분히 결집 시켜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운용에서 한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현물형이면서도 현물납입형 구조의 상품은 최초”라고 강조했다.

삼성자산운용은 27일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와KODEX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각각 선보인다.

설정액은 역대 ETF 최대 규모인 총 2조4000억원(삼성전자 1조665억원·SK하이닉스 1조3665억원)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해당 종목의 일간 변동률을 ±2배로 추종한다. 삼성자산운용을 비롯해 총 8개 운용사가 16개 상품(레버리지 14개·인버스 2개)을 동시 출시한다.

삼성자산운용은 자사 단일종목 레버리지 2종의 가장 특징 중 하나로 현물 레버리지인 점을 꼽았다. 레버리지 ETF는 수익률을 2배 추종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선물과 현물을 혼합한다. 이번 상품은 포트폴리오 내 선물 비중을 상대적으로 줄여 보유하고 있는 선물을 매월 롤오버(만기연장)할 때 발생하는 매매 비용을 줄였다는 것이다.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현물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삼성자산운용 KODEX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과 선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며 매매할 수 있어 시장 충격에 따른 위험 완화를 기대할 수 있고, 보유한 현물에서 배당 수익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계 최초로 레버리지 상품의 설정·환매 방식을 현금납입이 아닌 현물 납입방식으로 설계했다. 임 본부장은 “현금납입형 대비 연 1.1~1.4%의 거래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보수율(연 0.29%)이 다른 운용사들(0.0901~0.25%)보다 높은 수준이나 숨겨진 비용을 제외하면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자산운용은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업계 최다인 25개 지정참가회사(AP)와 15개 유동성공급회사(LP)를 확보해 상장일 개장과 동시에 업계 최다 파트너사들을 통해 풍부한 유동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유동성공급자 사이 완전 경쟁을 통해 풍부한 호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실시간 순자산가치(iNAV) 대비 괴리율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을 추구한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금융권·연기금 해외 사모대출 56조 육박

금융권 총자산 대비 0.42% 수준

당국 “리스크 관리 가능”

금융권과 주요 연기금·공제회의 해외 사모대출 투자 규모가 56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사모대출 시장을 둘러싼 건전성 우려가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투자 규모와 자산 대비 비중, 유동성 위험 등을 고려할 때 리스크는 관

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26일 전 금융권과 주요 연기금·공제회 등을 대상으로 해외 사모대출 투자 현황을 점검한 결과 올해 2월 말 기준 금융권 투자 규모는 30조5000억원, 연기금 등의 투자 규모는 2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규모는 55조9000억원이다.

해외 사모대출은 은행 대출을 받기 어

려운 기업 등에 사모펀드나 기업성장기구(BDC), 대출담보부증권(CLO) 등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대체투자 자산이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부실 가능성과 유동성 위험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점점 대상에 올랐다.

금융권의 해외 사모대출 투자 규모는 2023년 말 24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27조4000억원, 2025년 말 30조8000억원

〈권역별 총자산 대비 해외 사모대출 투자 비중〉

(단위:조원.%)

구분	합계	보험	상호**	증권	은행	여전	자산운용	저축은행
2026년 2월말 투자규모[A]	30.5 (100%)	20.58 (67.4%)	4.65 (15.2%)	2.84 (9.3%)	1.97 (6.5%)	0.40 (1.3%)	0.07 (0.2%)	0.01 (0.0%)
권역별 총자산[B]	7315.3	1348	323.2	944.4	4106.5	451.4	24.0	117.9
대비[A/B]	0.42%	1.53%	1.44%	0.30%	0.05%	0.09%	0.28%	0.01%

*총자산은 2025년말 업무보고서 기준, **총자산은 중앙회 기준 총자산.

으로 증가했다. 다만 최근 관련 우려가 확대되면서 올해 2월 말에는 30조50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권역별로는 보험사가 20조5800억원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만 금융권 전체 총자산 7315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해외 사모대출 투자 비중은 0.42%에 그쳤다. 보험권도 총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1.53% 수준이었다.

/허정윤 기자

거래소, 내부통제 강화 맞춤형 교육 추진

상장법인 임직원 대상 예방교육 컴플라이언스 역량 제고 지원

불공정거래 예방과 내부통제 강화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상장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별 맞춤형 교육에 나선다. 주요 정보 접근 가능성이 높은 실무자를 중심으로 내부거래 예방과 컴플라이언스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18

일 서울 사옥에서 상장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맞춤형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업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상장법인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및 불공정거래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회사의 주요정보 접근 가능성이 높은 직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관심이 높은 주제와 주요 위반 사례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한다. 이날 교육에는 상장법인 임직원 60여명(약 40개사)이 참석했으며, 상장법인의 내부거래 등 불공정거래 예방과 기업의 내부통제 역량 및 컴플라이언스 수준 제고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는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고 시장 건전성과 기업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장법인 내부자 예방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기업 투명성 및 시장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한국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2시 서울사옥 컨퍼런스홀에서 상장법인 공시·재무·회계·IR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심이 높은 주제와 주요 위반 사례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직무 맞춤형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한국거래소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 본격화… 부·울·경 미래 거점 육성

해수부, 동남권 육성 방향 발표
부산~로테르담 시범운항 추진
진해신항 글로벌 물류 허브 구축



부산 동구에 자리한 부산국제컨벤션센터.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이재명 정부의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 방향이 제시됐다. 동남권을 국가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북극항로 ▲첨단제조 ▲해양금융 ▲친환경 에너지 등 4대 전략이 추진된다. 북극항로와의 연계도 적극 시도된다.

정부는 부산을 국제 해양비즈니스 중심지로 키울 계획이다. 또 울산은 친환경 에너지 허브로, 경남은 항만물류·제조·인공지능(AI)이 결합된 글로벌 공급망 핵심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북극항로 활성화와 전 세계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동남권을 세계적인 해양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게 요지다.

우선 2030년 이후 도래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중장기적 국가 전략차원에서 북극항로 활성화를 단계적으로 준비한다. 올해 하반기 부산~로테르담 구간 시범운항을 추진한다. 이어 2030년 한·유럽

정기 항로 개설을 목표로 단계적인 운항 체계를 구축한다. 또 국내 내·쇄빙선대 확충을 비롯해 극지 전문인력 양성, 친환경 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 및 국제협력 확대 등도 추진한다.

둘째, 산업이 대도약하는 남부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해 진해신항 등 핵심 인프라와 연계해 세계적인 물류 중심지로서 경쟁력을 키워 나간다. 해양금융·해사법률·친환경 병커링·선박 유지보수정비(MRO) 등 고부가가치 해양 서비스산업도 육성한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친환경선박 등 미래 조선·해양산업 경쟁력을 강화

하고, 항만·물류·제조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I)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핵심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기업·사람·자본이 모이는 남부 해양수도권을 조성한다. 남부 해양수도권 전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계적인 해운·물류기업 유치를 추진한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개원하고, 대기업과 협력을 통해 채용연계 계약학과를 신설한다. 또 해양수산·이공계 전문인력 양성과 수요자 중심의 해양분야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청년인재 유입 등 남부 해양수도권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살기 좋은 남부 해양수도권을 조성한다.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남부 해양수도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남해안 관광자원을 잇는 해양레저관광벨트 구축도 시도한다.

황중우 해수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은 바다에 있으며, 남부 해양수도권의 성공은 5급3특 국토공간 대전환 계획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물류·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됐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12월4일 공포된 ‘부산이전기관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 및 관련 기관·기업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원활한 기업이전 지원을 위해, 소관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장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또 이주직원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이전기관 및 기업의 이전계획과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해수부 장관이 주택의 공급 범위 및 입주자격, 선정절차, 방법 등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황 장관은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구체화됐다”라고 평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환치기 등 ‘코인 뒷거래’ 처벌 받는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의결
재경부 장관 앞 등록, 한은 보고 의무

암호화폐(가상자산·코인)의 해외송금 등 자금 이동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된다. 최근 코인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가 늘면서 이른바 ‘환치기’ 등의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등의 가능성도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재경경제부는 2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사전 등록 의무 도입이다. 암호화폐 거래도 기존 외환관리 체계 내에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향후 해외로 가상자산을 내보내거나 국내로 들어오는 업무를 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 장관 앞 사전 등록’을 거쳐야 한다. 또 이 같은 등록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 국내를 이탈하는 자금이 급증하면서, 기존 외환관리 체계의 사각지대가 불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인을 활용한 환치기와 해외 재산 은닉, 불법자금 이동 등이 문제로 대두되면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환치기란 정식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두 나라 사이에서 자금을 주고받는 비공식 송금 방법이다. 예로, 국내에서 받은 원화를 외국환은행 중개 없이 바로 미국에서 달러화로 지급하는 방식 등이다.

정부는 해당 정보를 국제정관세정·금

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 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불법 외환거래 조사와 자금세탁 방지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 확대에 대응해 외환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업계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편을 통해, 은행 중심이던 외환 모니터링 체계를 가상자산 영역까지 확대한다.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 흐름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

등록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 또는 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환당국의 조사하에 기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반도체 수출 호황에 韓 성장률 2.5% 전망

산업업,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올해 한국 경제가 반도체를 필두로 한 IT 산업의 폭발적인 수출 성장세에 힘입어 2.5%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간 무역수지는 2190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의 흑자가 기대된다.

산업연구원이 26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 따르면, 올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9%에서 2.5%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올 상반기 성장률이 예상을 뛰어넘는 2.9%를 기록한 데다, 하반기에도 2.1% 수준의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성장의 일등 공신은 단연 수출이다. 연구원은 올해 연간 수출이 지난해보다 30.3% 급증한 9244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경쟁과 고성능

메모리·SSD 수요 급증이 반도체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을 유발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하는 구조다. 반면 수입은 에너지 및 중간재 중심으로 11.6% 증가에 그쳐, 연간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치인 219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가 포함된 IT산업군이 연간 81.9% 성장하며 압도적인 독주 체제를 굳힌다. 주력산업 수출의 45.7%를 차지하는 반도체는 올해 전년 대비 101.9%라는 역대 최고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보통신기기 역시 기업용 SSD 수요 확대로 93.2% 급증한다. 바이오헬스(6.6%)와 이차전지(6.8%)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내수와 전통 제조업은 온도 차를 보였다. 민간 소비는 금리 인하 지원 등으로 회복세가 제한되며 연간 2.2% 증가에 머물 전망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aT, 브라질서 1700만달러 수출상담 성과

상파울루 식품박람회 참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브라질에서 한국 길거리 음식을 선보이는 등 K-푸드의 남미시장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

26일 aT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8~21일 나흘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2026 상파울루 식품박람회(APAS SHO W 2026)’에 참가해 총 17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냈다.

브라질에선 한국 드라마와 K-팝의 영향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날이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와 aT는 우수수출업체 9개사와 함께 한국관을 구성해 이 박

람회에 참가했다.

올해로 40회째를 맞이한 APAS SHOW는 전 세계 900개 이상의 기업과 15만 명 이상의 식품업계 관계자가 찾는 남미 최대 규모의 식품박람회다. aT 관계자는 “한국 농식품의 수출 신시장인 중남미 시장 공략을 위한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는 특히 ‘aT 한국미식관’을 별도로 구성해 중남미의 베스트 K-푸드 전략품목인 스트리트 푸드와 음료를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김치볶음밥과 김치전 밀키트, 잡채, 비빔밥 등 한국관만의 특색 있는 제품이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었다.

박람회에 참가한 한 주류 수출기업 관



‘2026 상파울루 식품박람회’ 행사장 내 마련된 통합한국관 /aT

계자는 “K-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소주를 선보였는데, MZ세대의 이목을 끌며 성장 가능성을 봤다”며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남미시장 진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시작

농식품부, 3~4월치 신청액 102억

중동 사태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이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가운데 3, 4월 사용분 신청액 102억 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달 27~28일 이틀간 전국 농업경영체 21만 곳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는 국제유가 폭등 여파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 부담이 불어난 데 따른 지원이다.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신청한 농

업경영체에 한해 지급한다.

지난 2022년 5월 가격이 기준이 된다.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이 가격 대비 인상분의 70%를 지원한다. 한도 내에서 보전하게 된다.

전체 지원 규모는 총 62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에 사용하는 경우 지원에 529억 원, 시설농기

난방유 지원에 94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3월부터 9월까지의 사용분 농기계용 경유와 3, 4, 9월 사용분 시설농기 난방유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번 3, 4월분 지급액 102억 원은 각 농업경영체의 면세유류 구입카드 결제계좌로 입금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보이지 않는 보호, 피부는 더 편안해진다.

보호를 넘어, 피부를 위한 케어
샬롯 루시드

자외선 차단과 피부 보습 케어를
동시에 담은 UV 차단 투명 패치

- # 눈밑부터 광대까지 완벽 커버
- # 숨 쉬는 통기성 나노 원단
- # 접착제 없이 밀착되는 수분 기반 패치
- # UV-A 98% / UV-B 99% 차단
- # 0.05mm 초슬림 투명 패치
- # 無계면활성제로 안심 사용



Anano Inc. | 070-7773-9931 |

- 가양역_메가팜스 가양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금부빌딩 3층
- 을지로입구_명동퍼스트약국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14 눈스퀘어 1층 (T.02-3789-7277)
- 명동역_Hello K Beauty / WYNN (Currency Exchange, ATM, LUggage)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6길 6, 원스환전소 2~3층

- 양재역_메디피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2, 크리스탈빌딩 1층 (T.02-3463-1547)
- 신논현역_비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urbanhive 지하 2층 (T.02-542-8559)
- 해솔리 나인브릿지 / 경기도 여주시 명품1로 76 (T.031-887-9999)
- 제주 나인브릿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로 34-156 (T.064-793-9999)

경북 지방선거 선거인 220만명 확정... 70대 이상 최다

포항시 19.16%, 구미·경산 순 남성 111만명, 여성 109만명
경북도 “공정한 선거 관리 총력”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북지역 선거인수를 지난 22일 기준 220만2861명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성별로는 남성 111만1018명, 여성 109만1843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47만10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60대 46만4156명, 50대 42만9774명, 40대 32만8330명, 30대 25만1278명, 20대 21만4275명, 18~19세 4만3991명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42만2014명으로 전체의 19.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구미시 34만775명(15.47%), 경산시 23만1808명(10.52%) 순이었으며, 군 단위에서는 칠곡군이 9만951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 선거권자는 1904명, 국내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 선거권자는 2523명으로 집계됐다. 도내 거소투표 신고를 마친 선거권자는 4814명이다.

선거인명부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명부 작성, 17일부터 1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20일부터 21일까지 누락자 구제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선거권자는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와 투표소 위치 등 투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경북도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5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새로운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5월 13일 이후 전입

신고한 유권자는 기존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1인당 받게 되는 투표용지는 도지사, 시장·군수,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지역구 시·군의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교육감 등 총 7장이다.

사전투표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공무원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정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유권자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투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부산경제진흥원

‘해외지사화 지원’ 참여기업 모집

부산시는 다음 달 1일까지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2026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참여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세계 경기 침체 속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해외지사·간접지사화 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외지사화 사업에 선정될 시 코트라 해외 무역관을 현지 지사처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시회 참가, 물류·통관 자문, 현지 출장 및 인허가 취득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포항시

타이베이 박람회 콘텐츠 ‘대상’

경북 포항시는 지난 22~25일 대만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린 ‘2026년 타이베이 국제관광박람회(TTE)’에서 콘텐츠 부문 대상을 수상해 해외 관광 마케팅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타이베이 국제관광박람회는 ‘제2회 한국여행 엑스포’와 동시에 열려 포항시는 홍보관을 운영하며 중화권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관광 박람회에 참가한 포항시는 개별 여행(FIT) 중심으로 바뀌는 대만 관광 수요에 맞춰 해양 경관과 야간 관광, 체험형 콘텐츠를 소개했다.

/포항(경북)=김진근 기자

부산시

‘BTS 투어’ 대비 바가지 단속

부산시가 내달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인(IN) 부산’을 앞두고 바가지요금 특별 단속과 공공숙박 지원에 나섰다.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부터 숙박업소와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관광불편신고 등을 통해 바가지요금 민원이 접수된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공조해 조세 조사까지 의뢰할 방침이다.

시는 급려산·구덕 청소년수련원과 내원정사 템플스테이 등을 공공숙박시설로 운영해 외국인 관광객 452명 예약을 모두 마쳤다. 부산도시공사아르피나도 기존 숙박요금을 유지하는 ‘착한 요금’ 정책을 시행하며 전 객실 예약이 완료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울산시

길천2차산단에 ‘도시숲’ 조성

울산시는 총 7억원을 투입하여 길천2차 일반산업단지 내 유류 녹지공간에 약 8700㎡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림청 지원으로 지난 2022년부터 시작돼 오는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시는 해당 부지에 1022그루의 수목을 심어 도시숲을 조성한다.

도시숲 조성으로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 완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에 따른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울산=이도식 기자

전남도, 고출력레이저 산업 키운다

총사업비 1620억, 3개 분야 구상
기업 50여 개사 참여 의향서 제출



고출력레이저 적용 산업현장.

전남도가 산업용 고출력레이저 원천 기술 확보와 기업 집적화를 위한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국내 유일의 레이저 산업생태계 조성에 본격 나섰다.

전남도는 전남테크노파크와 함께 한국광기술원, 레이저 관련 기업 등의 자문을 거쳐 산업용 고출력 레이저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중장기 로드맵이다. 전남도는 총사업비 1620억원을 투입, 3개 분야 6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출력 레이저는 우주·방산, 조선, 철강, 반도체, e(이)모빌리티, 세라믹 등 첨단 제조산업 전반에 활용하는 핵심 요소 기술이다.

국내 레이저 산업은 광학 핵심부품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술 수준도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산업 생태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경주시, 문무대왕릉 성역화사업 본격화

내달 공원 조성 착공

경주시가 문무대왕릉 성역화사업의 핵심 공법인 공원조성 사업 착공을 앞두고 역사문화관광 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문무대왕릉 봉길리 841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문무대왕릉 성역화 사업’이 다음달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

이번 사업은 문무대왕릉 일원의 역사 문화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광객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이 사업에는 내년까지 총사업비 350억원이 투입된다. 재원은 국비 245억원, 도비 52억 5000만원, 시비 52억 5000만원이다.

주요 사업은 문무대왕 유조비 건립을

비롯해 주차장과 공원·조경시설 조성, 탐방로 정비, 편의시설 확충, 해안선 정비 등이다.

또 토지 27필지와 가옥·점포 25호에 대한 매입도 병행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토지보상률은 90% 수준이다.

경주시는 앞서 2014년 문무대왕릉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2020년 12월 문무대왕 유조비를 설치했다. 이어 2021년 3월 국가유산청 승인을 거쳐 정비기본 계획변경을 완료했으며, 해안침식 정비 공사와 주차장 조성사업도 마무리했다.

시는 사업 구간 주변 가설울타리 설치도 함께 추진해 공사안전관리와 현장 정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역사성과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주(경북)=김진근 기자 jingon@

구미 전역 잇는 ‘맨발길 네트워크’ 구축

40억 투입해 산책로 14곳 조성

경북 구미시가 추진해 온 14곳의 맨발 산책로 조성 사업이 마무리됐다.

시는 2023년부터 40억원을 들여 구미 전역 14곳, 13km 규모의 맨발 산책로 길을 모두 완성했다고 밝혔다.

지산갯강생태공원, 형곡공원, 산동우항공원에 이어 최근 고아 들성산립공원, 송정 철도변 도시숲, 임은동 시설농지까지 개통되면서 도심 전반을 잇는 맨발길 네트워크가 완성됐다.

총 3.4km에 달하는 지산갯강 생태공원 맨발길은 계절별 풍경이 뚜렷한 구미 대표 도심 힐링 명소로 자리 잡았다. 봄 벚꽃과 여름 연꽃, 가을 억새, 겨울 큰고니까지 사계절 자연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지난해 지산갯강 생태공원 방문객은 28만명으로 하루 평균 770명이 찾는 대표 휴식 공간으로 성장했다.

들성산립공원은 숲속에서 맨발 걷기



구미 지산갯강 맨발길

와 산림욕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 일상 속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접근성을 높였다.

정성현 구미시장 권한대행은 “권역별 맨발길이 모두 연결돼 시민 누구나 쉽게 걷기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도시가 됐다”고 말했다.

/구미(경북)=김준한 기자

사천시, 농지 이용실태 정밀 점검

내년까지 2단계에 걸쳐 진행

행된다.

경남 사천시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비농업인 소유 농지의 유희화 방지를 위해 ‘2026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전국 단위로 추진되며,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 1단계 조사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기간은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뉘며, 기본조사는 5월부터 7월까지, 심층조사는 8월부터 12월까지 진

행된다. 사천시의 조사 대상은 총 5만9089필지, 6144ha 규모다.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드론 영상, AI 분석 등을 활용해 농지 소유관계와 실경작 여부, 이용현황 등을 점검한다. 이어 심층조사에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시설 운영 상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상속·이농인의 농지 소유상환준수 여부 ▲농업회사법인 요건 충족 여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 ▲자경 및 임대차 적법성 ▲휴경 여부 ▲농지 이용·전용 행위 등이 다.

/사천(경남)=김준한 기자

냉면 한 그릇 1만 3000원 육박... '가정용 여름면' 수요 급증

식품업계, 전문점 수준 경쟁력 강화

농심 '배홍동막국수' 500만개 판매
오뚜기 부산식 밀면 콘셉트 차별화
팔도 '팔도비빔면' 프리미엄 승부수

때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여름철 대표 외식 메뉴인 냉면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 그릇에 1만 3000원에 육박하는 냉면값 부담에 소비자들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가정용 여름면'으로 눈을 돌리면서 식품업계의 시장 선점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지역 냉면 평균 가격은 올해 3월 1만 2538원, 4월 기준 1만 2615원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22년 처음 1만 원을 돌파한 이후 4년 만에 25% 넘게 뛰어오른 수치다. 특히 서울 3대 평양냉면 맛집으로 꼽히는 우래옥은 최근 가격을 1만 8000원으로 인상했으며, 울밀대(1만 6000원)와 필동면옥(1만 5000원) 등도 줄줄이 가격을 올렸다.



배홍동막국수 /농심

흥미로운 점은 냉면의 주원료인 메밀 중·도매 가격이 kg당 3025원으로 전년 대비 8%가량 하락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냉면값이 폭등하는 이유는 다른 부자재와 운영비 부담 때문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조사 결과, 육수의 핵심 재료인 한우 양지 가격(100g당 평균 6299원)이 전년보다 24% 이상 급등한 데다 인건비, 임대료, 가스비 등 매장 운영 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식품업계는 전문점 수준의 맛과 면 식감을 구현한 다채로운 제품으로 '집밥족' 공략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농심이 지난 3월 출시한 '배홍동막국수'



진밀면 /오뚜기

수'는 메밀 풍미를 살린 면과 특제 비빔장의 조화로 출시 약 3개월 만에 누적 판매 500만 개를 돌파하며 시장에 안착했다.

오뚜기는 부산 밀면 콘셉트를 적용한 '진밀면'을 선보였다. 해당 제품은 출시 54일 만에 500만 개 판매고를 올렸다. 대표 스테디셀러인 '진비빔면' 역시 누적 판매량 2억 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시장 1위 팔도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 프리미엄 전략을 꺼내 들었다. 신제품 '팔도비빔면 더 블루'는 기존의 얇은 소면 대신 쫄깃한 식감의 '중면'을 적용해 면발 차별화로 소비자 입맛을 공략 중이다.

소비자들의 입맛이 세분화됨에 따라 단



팔도비빔면 더 블루 /팔도

순 비빔면을 넘어 지역 특색을 살리거나 이색적인 식감을 강조한 제품들도 대거 쏟아지고 있다.

오뚜기는 외식 냉면의 대안으로 고소하고 탄탄한 '찰냉면'과 쫄깃함을 극대화한 '쫄냉면'을 새롭게 출시했다. 삼립의 미식면 브랜드 하이미는 안동식혜를 활용해 칼칼함을 살린 '홍비빔 막국수'와 전통 방식으로 고소한 풍미를 낸 '들기름 막국수' 2종을 선보였다.

그 외에도 삼양식품의 '맵탱 콜스파이시 비빔면', 하림 더미시의 '메밀비빔면'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풀무원의 식물성 외식 브랜드 플랜트에서는 '서리



맵탱 콜스파이시 비빔면 /삼양식품

태 콩국수', '참나물 두부가라아게 메밀면' 등 식물성 식재료 기반의 건강한 여름 메뉴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여름이 길어지면서 계절면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고 있다"며 "최근 여름면 시장은 저렴한 대체식을 넘어 전문점 못지않은 맛과 식감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짚었다. 이어 "외식 물가 부담으로 간편식과의 가격 격차가 벌어질수록 가정용 여름면 시장은 더욱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농심, 인도 온라인 식료품 시장 본격 진출

'신라면 김치볶음면' 브랜드 론칭
블링킷 유통계약... 제품 공급 확대

농심이 인도 쿼커머스 1위 업체와 손잡고 현지 온라인 식료품 시장 공략에 나선다. 빠른 배송 서비스에 익숙한 인도 젊은 층을 겨냥해 첫 제품으로 '신라면 김치볶음면'을 내세웠다.

농심은 지난 22일 인도 뉴델리 인근 구루그룹에 위치한 더웨스턴 구르가온에서 '신라면 김치볶음면' 브랜드 론칭 행사를 열고, 인도 쿼커머스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블링킷과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은 급성장 중인 인도 쿼커머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다. 농심은 블링킷이 보유한 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뉴델리와 뭄바이 등 인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신라면 브랜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블링킷은 현재 인도 쿼커머스 시장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은 첫 론칭 제품으로 '신라면 김치볶음면'을 선택했다. 볶음면 소비가 활발



아니쉬 스리바스타바 블링킷 CBO(왼쪽)와 조용철 농심 대표이사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심

한 인도의 식문화와 쿼커머스 이용에 익숙한 현지 젊은 소비층의 취향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한국무역협회 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인도 이커머스 시장은 2025년 900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24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쿼커머스 시장은 같은 기간 8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6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 현장에는 K-푸드를 체험할 수

있는 '신라면 분식' 콘셉트의 팝업 부스와 포토존도 마련됐다. 현지 인플루언서들이 참석해 제품 시식 후 SNS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온라인 마케팅도 함께 진행됐다.

농심 관계자는 "블링킷과의 협력을 통해 인도 전역에 신라면 브랜드를 적극 알릴 계획"이라며 "현지 소비자들의 일상 속에 신라면 브랜드 경험을 자연스럽게 확대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보틀병커, 시음·다이닝 등 체험형 콘텐츠 강화

내달 '에드워드 리 X 기원' 클래스

보틀병커가 위스키 시음 행사와 와인 이벤트를 잇달아 열며 체험형 콘텐츠 강화에 나선다. 단순 주류 판매를 넘어 시음·다이닝·클래스 등을 결합한 오프라인 경험 확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보틀병커는 오는 6월 4일 잠실점에서 '에드워드 리 X 기원 위스키 테이스팅 클래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잠실점 내 운영 중인 국내 싱글몰트 위스키 브랜드 '기원' 팝업스토어와 연계

해 마련됐으며, 와인 다이닝 공간인 '보틀병커 비스트로'에서 열린다.

행사에서는 기원 위스키 3종 시음과 함께 4코스 디너 페어링이 제공된다. 이 가운데 한 메뉴는 에드워드 리 셰프가 위스키와의 조화를 고려해 구상한 메뉴로 현장에서 직접 조리할 예정이다.

참가 인원은 20명 한정이며 참가비는 5만원이다. 행사 당일에는 에드워드 리 셰프 사인회도 함께 진행된다. 참가 신청과 세부 내용은 오는 28일 보틀병커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된다.

보틀병커는 최근 체험형 주류 콘텐츠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추성훈의 사계 브랜드 'AKI(아키)' 팝업스토어를 운영했고 올해 들어서는 중국 백주 카테고리 클래스와 일본 사계 클래스 등을 진행했다.

오는 6월 18일에는 '보틀병커 비스트로' 오픈 1주년을 맞아 와인 시음 행사도 열 예정이다. 다양한 와인과 함께 비스트로 메뉴를 핑거푸드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서울우유협동조합, 日 디저트 시장 공략

해외 전용 '비요뜨 아이스크림' 판매

서울우유협동조합이 대표 토핑 요거트 브랜드 '비요뜨'를 앞세워 일본 디저트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일본 전용 신제품 '비요뜨 아이스크림'을 현지 편의점 채널에 출시하며 글로벌 브랜드 확장에 시동을 건 것이다.

26일 서울우유협동조합에 따르면 일본 시장 전용으로 개발한 '비요뜨 아이스크림'을 일본 전역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판매한다. 이번 제품은 서울우유가 비요뜨 브랜드로 선보이는 첫 해외 전용 제품이다.

비요뜨는 2004년 출시된 국내 최초 토핑 요거트 제품으로 바삭한 초코 토핑과 요거트를 함께 즐기는 형태로 꾸준한 소비층을 확보해왔다. 최근에는 일본 등 해외 관광객 사이에서 '한국 방문 시 구매해야 할 제품'으로 입소문을 타며 인지도를 넓혀왔다.



일본 시장 전용 '비요뜨 아이스크림' /서울우유협동조합

이번 해외 전용 제품은 비요뜨 특유의 토핑 식감과 요거트 풍미를 구현한 바타입 아이스크림이다. 일본 디저트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기존 제품 대비 산미를 낮추고 쫄깃한 식감을 강화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아이스크림 출시를 계기로 비요뜨를 활용한 디저트 제품군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일본 시장 진출을 발판 삼아 글로벌 디저트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우리와 "펫푸드 제조과정 직접 살펴보세요"

'메가주 일산' 참가... 체험형 부스 운영

K-펫푸드전문기업 우리와주식회사가 국내 최대 반려동물 박람회인 2026 메가주 일산에 참가해 체험형 부스를 운영하며 소비자 접점 확대에 나선다.

우리와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2026 메가주 일산'에서 '우리와 펫푸드 키친' 콘셉트의 체험형 부스를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메가주 일산'은 반려동물 식품과 용품, 헬스케어, 펫테크 등 관련 산업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국내 최대 규모 반려동물 박람회다.

우리와는 이번 행사에서 실제 생산 공

정을 모티브로 한 공간을 조성한다. 부스는 원재료 구간인 레드존, 생산 구간인 옐로우존, 포장 구간인 블루존으로 나뉘며, 관람객들이 펫푸드 제조 과정을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현장에서는 신제품 전시와 함께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한다. 인스타그램 팔로우 및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추가 참여자를 대상으로 신제품 '이즈칸 7DAYS' 샘플링을 제공하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알림받기 참여 시 ANF, 이즈칸, 웰즈, 프로베스트 등 주요 브랜드 제품 샘플도 증정한다. 브이옴 동물병원 진료 코너를 통한 반려동물 건강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SK바사, 콜롬비아에 백신 기술이전... 중남미 시장 확대

‘글로벌라이제이션’ 사업 통해 콜롬비아 백신 자립 등 협력

안정적 백신 공급 기반 확보 기대
수두백신 ‘스카이바리셀라’ 이전



SK바이오사이언스 수두백신 스카이바리셀라 수출용 제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 백신을 기반으로 콜롬비아 정부와 함께 35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단순히 백신 수출을 넘어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기반 구축까지 연계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localization)’ 사업을 통해 중남미 시장 확대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콜롬비아 국영 제약기업 VECOL과 백신 기술이전 및 현지 생산 협력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콜롬비아 보건사회보호부가 주도하고, 콜롬비아 국립보건원(INS)과 국영 제약기업 VECOL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백신 자국화 사업의 일환이다. 향후 10년간 약 2억6000만 달러(약

3500억원)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 프로젝트로 콜롬비아 정부가 백신 자립 기반 구축과 국가 공중보건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한다.

VECOL은 콜롬비아 정부로부터 해당 사업의 대표 실행기관으로 지정돼 사업 전반의 실행을 맡게 됐으며,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기술이전 및 현지 생산 협력 파트너로 참여하게 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향후 콜롬비아 내 생산시설 구축과 제품 도입, 규제 승인과 생산 운영에 필요한 기술 및 노하우 이전 등을 수행하게 된다. VECOL은 생산 시설 설립 및 운영, 정부 인허가 확보, 국가 예방접종사업(NIP) 연계, 정부기관 협력 등을 맡는다.

초기 기술이전 대상 품목으로는 수두백신 ‘스카이바리셀라(SKYVaricella)’가

선정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개발 백신인 스카이바리셀라를 기반으로 현지 생산 및 기술이전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추가 백신 제품군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은 물론, 향후 콜롬비아 정부가 도입할 다양한 제품군도 해당 시설을 활용할 경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우선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와 함께 SK바이오사이언스는 범미 보건기구(PAHO)로부터 콜롬비아향 스카이바리셀라 95만 도스의 연내 공급 요청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60만 도스에 대한 최종 구매 주문도 확보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콜롬비아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백신 자국화 프로젝트는 중남미권 전반의 안정적인 백신 공급 기반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협력을 중남미 지역 내 생산 거점 확보 및 중남미 기술이전 프로젝트 확대의 교두보로 활용할 계획이다.

루시아 아얄라(Lucia Ayala) VECOL

대표는 “이번 협약은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바이오 기술 이전을 넘어 지식과 역량을 축적하고, 공중보건과 보건주권 분야의 전략적 역량 회복을 위한 장기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축적된 백신 개발·생산 역량과 글로벌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감염병 대응과 지속가능한 백신 공급 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2년 PAHO 수두백신 입찰에서 첫 주수에 성공한 이후 중남미 시장에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며 신뢰를 구축해왔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사업도 순항 중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태국 등 주요 국가들과도 백신 기술이전 및 현지 생산 기반 구축 협력을 추진하며, 지역별 생산 거점과 공급망을 연계한 글로벌 백신 사업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셀트리온, 신약개발·제조·사무 AI 도입

신약개발 부문서 AI 적용 가장 활발
신설공장 중심 피지컬 AI 적용 집중
단순업무처리 소요 시간 90% 단축

셀트리온이 신약 개발, 제조, 사무 등 3대 주요 업무 영역에 인공지능(AI)을 적극 도입하며 글로벌 제약 시장 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AI 전환(이하 AX)을 통해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보다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현재 AI 적용이 가장 활발한 부문은 신약 개발이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AI 기반 신약개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생물정보학(BI)과 AI 기술을 활용해 신약 타깃 후보물질 발굴, 검증, 최적화 등의 개발 업무에서 단계적으로 AI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10년 이상 소요되는 개발 기간

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조 부문에서는 신설 공장 중심으로 피지컬 AI를 적용한 스마트 팩토리 구현에 집중한다. 송도에 건설 예정인 신규 원료의약품 4, 5공장에 자율이송로봇(AMR), 자동화 물류 창고, 지능형 로봇팔 및 협동로봇, 제조 관리 소프트웨어 등을 도입해 공장 자동화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공장 준공 시점까지는 우선적으로 정형화된 작업의 자동화를 추진하고 이후 고부가가치 판단 업무 등에 AI를 접목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사무 부문에서는 이미 데이터 분석과 대시보드 구축, 인사이트 도출 등에 AI를 적극 활용 중이며 점차 업무 적용 범위를 늘려갈 계획이다. 특히 회사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에 챗봇을 적용한 시물레이션 결과, 서류 검색 등 단순 업무 처

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80~90% 단축될 전망이다.

이러한 셀트리온의 AX는 현업 임직원이 주도하는 바텀업(Bottom-up)과 전사적 차원의 솔루션 개발인 탑다운(Top-down) 방식의 ‘투트랙 전략’으로 이뤄진다. 이 같은 전략을 통해 현업의 자발적인 AI 활용을 확산하고 업무 흐름별 차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해 단기적인 업무 편의성 향상은 물론, 사업 전 과정에서 AI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중장기 성과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 도입하고 있는 AI 기술은 실질적으로 업무 자동화의 폭을 넓히고 업무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며 “신약 개발부터 사업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AI 밸류체인을 완성한 글로벌 종합제약사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장기지속형 비만치료제 연구성과 공개

인벤티지랩, 美 ADA서 발표 예정

약물 전달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랩은 오는 6월 5~8일 미국에서 개최되는 ‘미국 당뇨병 학회(ADA)’에 참가해 자사의 장기지속형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연구 성과를 포스터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ADA에서 인벤티지랩은 세마글루티드(Semaglutide) 기반의 월 1회 투여 장기지속형 주사제(LAI)인 ‘IVL3021’의 비임상 연구 결과를 선보인다. IVL3021은 인벤티지랩의 핵심 기술인 ‘IVL-DrugFluidic’ 플랫폼이 적용된 제형이다. 이 기술은 균일한 입자 제조를 통해 약물 방출 속도를 정밀하게 제어하며, 기존 치료제 대비 초기 방출(burst)을 최소화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치료 농도를 유지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연구에서는 IVL3021의 우수한 체내 노출도와 이에 따른

용량 의존적인 체중 감소 효능이 확인되었다. 특히, 기존 주 1회 투여 제형의 한계를 보완하여 월 1회 투여만으로도 효과적인 체중 관리가 가능함을 입증했다. 또한, 기존 약물 투여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체중 반동 현상을 IVL3021을 통해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유지요법’으로서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차세대 파이프라인인 ‘IVL3024’에 대한 연구 결과도 공개된다. 티르제파티드(Tirzepatide) 기반의 IVL3024는 비임상(mini pig) 평가에서 단회 투여로 4주 이상 장기간 안정적인 약물 노출 특성을 확인했으며 우수한 약동학적 프로파일과, 제제적으로 마이크로스피어에 캡타이드 약물의 고함량 로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인벤티지랩은 이를 기반으로 향후 GLP-1/GIP 이중 작용제(dual agonist) 기반의 LAI 플랫폼으로 파이프라인을 적극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국가바이오혁신위, ‘민·관·데이터’ 협의체 첫걸음

정책 수요·현장 의견 수렴 소통 창구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바이오 분야의 혁신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과 공공, 데이터를 아우르는 소통 채널을 본격 개동한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민간 협의회’, ‘공공 연구기관협의회’, ‘데이터협의회’ 등 3대 협의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3대 협의회는 국내 바이오 분야를 대표하는 협회, 단체, 공공 연구기관 및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향후 바이오 산업 전반의 정책 수요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핵심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각 협의회는 첫 회의부터 분야별 핵심 당면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우선 민간 협의회는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를



지난달 16일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공유하고,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현장 애로사항과 규제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공공 연구기관협의회는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 기관 간 연구개발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바이오 정책을 제안하는 등 협업 방안을 잇는다.

데이터협의회도 실행력을 높인다. 국가

보유 바이오 데이터의 수집 방안과 활용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둔다. 향후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확장된 가치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처럼 각 협의회에서 발굴한 중요 과제를 실무 검토를 거쳐 위원회 차원의 공식 정책 과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현장 목소리를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와 실시간으로 연계해 정책 수립의 실질적인 추진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원희목 부위원장은 “이번 3대 협의회 출범은 현장과 정책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촉촉한 입술관리와 광채 표현 한 번에”

애경산업 ‘에이지투웨니스’
립시크 글로우 세럼 10종 선배



에이지투웨니스 ‘립시크 글로우 세럼’. /애경산업

애경산업은 스킨 퍼스트 메이크업 브랜드 에이지투웨니스(AGE20'S)에서 립시크 글로우 세럼 10종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스킨케어 성분을 70% 함유해 보습 효과를 갖는다. 세럼 제형으로 촉촉한 입술 관리와 광채 메이크업 표현을 동시에 구현한다.

또 9종 히알루론산, 3종 세라마이드, 12종 펩타이드 등 총 24가지 성분도 더해져 입술에 영양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입술 거칠기와 처짐의 외부 원인 중 하나인 자외선까지 고려해 SPF20/PA++ 수준의 자외선 차단 기능이 적용됐다.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립시크 글로우 세

럼 1회 사용 직후 입술 광택 1463.0%, 입술 보습 54.4%, 입술 각질 79.3%, 입술 잔주름 커버 10.00% 등 개선 지표가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일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총 10가지 색상으로 구성됐다. 자연스러운 누드톤 중심의 ‘모닝 시크 라이트 톤’으로 01~04, 생기 있는 계열로 ‘애프터눈 시크 미들 톤’ 05~07, 깊이 있는 분위기의 ‘이브닝 시크 딥 톤’ 08~10 등으로 다양한 메이크업 연출이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



월 매출 추이
252,463,204원

평균 수익률
32.64%

잘되는 가게는 숫자로 증명됩니다

매출 공개 · 수익률 공개 · 점주 인터뷰로 확인하는
으뜸스시의 경쟁력

전체 32개 지점 중 20개 역대 매출 기록

5/27 (수) 34호점,
으뜸스시 구리점 오픈!

1

역대 최대 매장 매출

2억 5천만 원대

사례

2

역대 최대 하루 매출

1,099만 원대

사례

3

역대 최대 수익률

32.64 %

사례

4

역대 최대 세전 이익

8,366 만원

사례

※ 실제 매장 사례 기준 / 지점 · 시기별 상이



왜 지금,
회전초밥인가?

외식업 내
낮은 경쟁 밀도



자동화
운영 시스템

자동화 기반으로
운영 부담 완화



초보 창업자도
가능

본사 교육 · 오픈 ·
사후 관리 체계 지원



서울 및 전국
상권 창업

생활권 중심
입지 상담



창업상담 1644-0622





웹젠, ESG나눔기업패 4년 연속 수상

웹젠이 청소년 코딩 교육 격차 해소와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2026 ESG나눔기업패'를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웹젠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ESG나눔기업패를 받으며 지역사회 연계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웹젠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은 성남시청소년재단과 함께 운영하는 '청소년 코딩 공작소 위드 웹젠'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진행 중이다. /웹젠



케이뱅크, 취약계층 아동 나들이 지원

케이뱅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프로그램 'K-joyful 아동·청소년 나들이 지원사업'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여건에 따른 아동들의 체험활동 경험 격차를 완화하고, 대상 아동·청소년들이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했다. /케이뱅크



남부발전, 텍사스 전력시장 진출 기반 강화

한국남부발전이 미국 현지 파트너사와 손잡고 북미 에너지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강화한다. 텍사스 전력시장(ERCOT)의 전력거래 역량을 내재화해 현지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남부발전은 지난 22일 미국 에너지 전문 기업인 헌트 에너지 네트워크(Hunt Energy Network, 이하 HEN)사와 '텍사스 전력시장 전력거래 시스템 교육훈련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남부발전

동화약품, 송우를 신임 연구부문장 선임

동화약품이 연구개발(R&D) 전문가를 영입해 미래 성장 동력을 다지고 있다. 동화약품은 신임 연구부문장으로 송우를 이사(사진)가 합류한다고 26일 밝혔다. 송우를 이사는 의약품 연구개발 현장에서 실무 경험과 연구조직 관리 역량을 갖췄다. 송 이사는 2007년 경동제약 제제연구실 연구원으로 의약품 연구개발을 시작했다. 이후 경동제약 신제품연구실 개량신약팀 파트장, R&D 센터 제제연구부 제제1팀 팀장, 제제연구부 수석팀장 등을 역임해 다양한 제형 개발과 제품화 경험을 쌓아왔다. 2021년에는 유유 제약에서 제제연구1팀 팀장을 맡았고, 2025년부터는 제제연구실장으로 재직하며 연구 조직 전반을 이끌었다. /이창하 기자 mlee236@



인사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기획부장 김승길 △산학협력단 산학지원부장 김상일

부음 ▲김옥자 씨 별세, 윤승연(국립현대미술관 홍보관) 씨 모친상=26일 오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 28일 오전 5시40분. 02-857-0444

LG, '쉬었음 청년' 1000명 직무교육으로 재도약 돕는다

하반기 '렛츠 그로우 위드 LG' 운영 전자·화학·디스플레이 3개사 참여 AI·제조·디지털마케팅 실무 교육

LG가 취업 준비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 프로그램 'Let's Grow with LG(렛츠 그로우 위드 LG)'를 새로 만들고 올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2026년 전쟁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편성된 'K-뉴딜 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이다.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이 직업훈련·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청년이 신청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청년 이른바 '쉬었음 청년'의 고용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총 예산은 1000억 원이며 참여 청년에게 교통비·식비 명목으로 월 30만~5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기업에도 시간당 1만4000원~2만 원의 훈련



LG전자 여의도 트윈타워 사옥 전경. /LG전자

비를 지원한다. 현재 삼성·SK·현대차·LG 등 10대 그룹을 포함해 70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로 정부는 올해 6월 중 1호 아카데미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LG전자·LG화학·LG디스플레이 등 3개 계열사가 참여해 AI·생산·제조·디지털마케팅 분야 직무 교육과 실전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신입사원 수준의 실무 지향형 교육 훈련을 통해 청년들의 재도

약과 빠른 취업을 돕는 것이 목표다.

계열사별 정원과 교육 지역은 구분됐다. 가장 많은 700명을 맡는 LG전자는 경기 평택과 대전·대구·부산 등 4개 거점에서 AI 및 스마트팩토리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현업 문제를 해결하는 실전 AX(AI 전환)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한다. LG화학은 200명을 선발해 경기 오산과 전남 여수에서 석유화학·바이오사업 실무를 가르치며 AI 코딩 기반 업무 자동화 교육을 거쳐 사내 AX 전문가 자격증 취득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LG디스플레이는 경기 파주에서 100명을 교육하며, 국가첨단산업으로 지정된 디스플레이 제조 기술 특화 훈련에 집중한다.

지역 균형도 고려했다. 전체 정원의 절반인 500명을 대전·대구·부산·여수 등 비수도권에 배정해 수도권 집중을 피했다. 3개 계열사는 직무교육 외에도 현지 자멘토링, 자기소개서 컨설팅, 모의면접 등 구직 준비 전 과정을 함께 지원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LG가 기존에 운영 중인 청년 인재 육성 사업과도 연결된다. LG 에이머스(Aimers)는 2022년 하반기에 시작해 올 상반기까지 참가자 2만 명을 넘어선 청년 AI 인재 교육 프로그램으로, LG는 2030년까지 누적 5만 명 이상의 청년 AI 인재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에이머스는 AI 기초 지식과 코딩 역량을 갖춘 만 19~29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운영하며, AI 대학원 수준의 강의부터 채용 지원 활동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Let's Grow with LG'는 에이머스가 AI 역량 개발에 특화된 것과 달리, 제조·화학·디스플레이 등 계열사 현업 직무 전반으로 대상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구광모 LG 대표가 평소 강조해온 '인재가 곧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경영 철학이 이번 프로그램에 반영됐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넥센타이어, 서킷 체험형 모터축제 개최

30일 에버랜드 스피드웨에서 열려 주행 클래스·동승 프로그램 운영

넥센타이어는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와 공동으로 '넥센타이어 스피드웨이 모터 페스티벌'을 오는 30일 에버랜드 스피드웨이 경기장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2023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4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연간 5라운드 운영되며 관람객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브랜드 홍보를 넘어 고객 체험 중심의 '브랜드 경험 마케팅'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대회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대회 참가자가 직접 차량을 주행하는 주행 클래스, 전문 드라이버와 함께 서킷을 체험하는 동승 프로그램, 그리고 차량 전시·푸드 트럭·스탬프 투어 등 관람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다.

대회 참가자들이 직접 주행하는 클래스는 대한자동차경주협회 공인 종목인 타겟 트라이얼(주어진 타겟 타임에 가장 근접한 랩타임 기록)과 짐카나(콘 장애물 코스를 최단 시간에 통과하는 모터스포츠) 코스로 운영된다.

가족 단위 관람객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동승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전문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서킷 택시·짐카나 택시·서킷 사파리 버스·오프로드 택시·오프로드 어드벤처 등 5종의 프로그램을 현장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본인의 개성 있는 차량을 전시하고 교류하는 카밋(Car Meet)과 RC 체험·스티커 사진 촬영·인형 뽑기 등을 할 수 있는 플레이존이 마련되어 있으며, 푸드 트럭, 스탬프 투어 또한 함께 운영된다. 또 삼성 모빌리티 뮤지엄도 무료 관람할 수 있도록 왕복 셔틀 버스가 제공된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그룹, 미디어 아티스트 창작 지원

VH 어워드 5팀에 제작비·전시 기회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에도 차세대 미디어 아티스트에 대한 창작 지원을 이어간다.

현대차그룹은 차세대 미디어 아티스트를 지원하기 위한 공모전인 '제7회 VH 어워드'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26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되는 공모전에서 최종 선발된 5팀에는 작품 제작비와 전시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는 아티스트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는 '특별 언급' 부문도 신설했다. 내년 6월에는 최종 선발된 5팀 가운데 국제적 심사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그랑프리 1팀을 선정하고 상금 3만 달러를 추가 수여할 예정이다.

선정 작품은 내년 하반기부터 스위스 바젤의 하우스 오브 일렉트로닉아트, 오스트리아 린츠의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싱가포르 아트 위크, 현대



제6회 VH 어워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전시 전경.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차그룹 인재개발원 마북 캠퍼스에 위치한 비전홀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시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와 협업해 온라인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 6월에는 최종 선발된 가운데 그랑프리 1팀을 선정해 상금 3만달러를 추가 수여한다.

/양성운 기자



안중은 한전 경영관리부사장(왼쪽에서 6번째)이 지난 22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열린 '26년도 전기공학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전

한전, 전기공학 장학생 107명 선발

2005년부터 총 1580명 장학금 지원

한국전력(한전)이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전력분야의 미래 인재 육성에 앞장선다. 한전은 지난 22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26년도 전기공학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기공학 장학생'은 전국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장학사업이다. 장애인·학생 가정·다자녀 등 가정형편과 학업성적, 수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성적 우수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158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전국 51개 대학교의 전기공학

전공 장학생 107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특히 한전은 대졸 수준 신규 채용 시 전기공학 장학생에게 선발일로부터 졸업 후 3년 이내 기간 동안 서류 전형 면제 1회 혜택을 부여한다. 장학금 지원이 단순한 경제적 원조를 넘어 실제 채용까지 연계되는 우수 인재 확보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안중은 한전 경영관리부사장은 "전 세계는 전력을 AI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으로 주목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전환 속에서 전력 분야 핵심 인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안 부사장은 선발된 장학생들을 격려하며, 미래 국가 에너지산업에 이끌어갈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전북은행 목련회, 국립묘지 가꾸기 봉사

임실호국원 묘역 1549기 태극기 게양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목련회는 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국립임실호국원에서 2026 국립묘지 '1사 1묘역 가꾸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북은행 여성 임직원으로 구성된 목련회 회원 및 자녀 30여명은 지난 23일 국립임실호국원을 찾아 321~322구역의 묘역 총 1549기에 직접 태극기를 꽂고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했다. 국립임실호국원은 지난 2017년부터 전북은행과의 결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국립임실호국원에서는 목련회

회원과 자녀들을 위해 현충탑 참배, 동영상 시청 등을 제공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령들을 기억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해 봉사활동의 의미를 더한다는 의미다.

김태희 전북은행 목련회 회장은 "올해에도 자녀들과 함께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미래 세대와 호국보훈의 의미를 공유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돼 보람을 느꼈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지역사회에 나라사랑 정신의 확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231@

매절계약 시, 저작권 양도 명확해야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콘텐츠 업계에서 '매절계약(賣切契約)'은 자주 문제가 되는 계약 형태 중 하나다. 이는 출판사 등이 저작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후 저작물 이용을 통해 얻는 수익을 모두 가지는 형태를 말한다. 나중에 해당 저작물을 통해 커다란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저작자 측에서 불공정 계약 등의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출판사 등은 초기 투자의 위험을 부담하므로(즉, 해당 저작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저작자는 지급받은 금액을 계속 보유하므로) 불공정한 조건이 아니라고 항변하기도 한다.

이러한 매절계약은 저작권법에 비춰보면 '저작권양도계약'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할 때에 저작권양도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저작권양도계약으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됐다.

이 사안은 원고가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하

고 음악저작물을 작성해 소외 회사에게 공급한 것이었는데, 음원공급계약에는 '매절'이란 음원에 대해서 저작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가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 정외 규정이나,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제공하여 매절된 음원의 저작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은 소외 회사에게 귀속된다는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위 음악저작물의 사용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했다. 그리고 1심 및 2심은 모두 위 음원공급계약이 저작권양도계약이라고 해석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할 때 그것이 저작권양도계약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양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으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해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양도계약인지 여부는 계약 문언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 경위,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는 법리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위 음원공급계약은 저작권양도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판단의 근거로, ▲위 음원공급계약에는 소외 회사가 이전받는 권리 중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고 기재돼 있는 점 ▲위 음원공급계약에 저작권양도의 양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매절'은 저작물의 출판계약에서 그 출판대가를 발행 부수에 관계없이 미리 일시불로 지급받고 인세는 배제하기로 하는 출판대가의 지급방식을 일컫는 것으로도 사용되는데, 위 음원공급계약에서 '매절'이 저작권양도를 의미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위 음원공급계약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음악저작물을 리듬게임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는데, 소외 회사가 반드시 저작권양도를 양도받아야만 이러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들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저작권양도의 자체는 허용되지만 그에 따른 효과(저작권의 저작권 상실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저작권양도계약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 실무자로서는 계약 과정에서 '저작권양도'를 의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효력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그 계약의 문언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

금모으기 나라는 왜 성과급에 매달리게 됐나



기지수첩 구남영 (산업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시민들은 금반지와 목걸이를 들고 거리로 나왔다. 나라가 살아야 나도 산다는 믿음이 있었다. 손해를 감수하면 서도 고이 간직해오던 금붙이들을 내놓았다. 지금 돌아보면 낯설 정도로 집단적이다.

기업 현상도 다르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경우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후 연구원들은 도면을 펼쳐놓고 반세 회의를 했고, 1995년에는 불량 휴대폰 15만 대를 공장 마당에서 불태웠다. 회사가 무너지면 내 삶도 흔들린다고 믿던 시대였다.

그 편이 합리적이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임금 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회사가 성장하면 월급이 올랐고, 월급이 오르면 집을 살 수 있었다. 함께 성장

한다는 말은 구호가 아니라 경험이었다. 과거 세대는 가난을 두려워했지만 지금 세대는 탈락을 두려워한다. 이 차이는 세대 감수성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구조와 자산 환경의 변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46주 연속 올랐고, 2025년 누적 상승률은 8.25%로 2012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송파구는 20% 이상 뛰었다. 예전엔 월급이 집값을 따라갔지만 지금은 집값이 월급을 앞질러 달아난다. 1990년대 직장인은 야근 끝에 내 집 마련을 상상했지만 지금 직장인은 야근 끝에 전세 계약 연장을 걱정한다.

노동만으로 계층 상승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희미해지면서, 사람들은 회사를 공동체보다 현금 창출 수단으로 보기 시작했다. 부동산이 어려워지자 주식시장으로 향했지만, 주식 역시 시드머니가 있는 사람이 유리한 게임이었다. 문이 하나씩 닫힐 때마다 사람들은 남은 문으로 몰렸다. 그 마지막 문 가운데 하

나가 성과급이다. 예전의 성과급이 "잘했다"는 보상이었다면, 지금의 성과급은 자산시장 진입을 위한 종잣돈이다. 반도체 호황기 성과급 규모가 알려질 때마다 부동산 커뮤니티와 호가가 들썩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누군가는 그 돈으로 서울 입성 계산을 두드리고, 누군가는 같은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평생 불가능하다고 느낀다.

삼성이어서 특별한 것도 아니다.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드러났을 뿐이다. 주거·교육·노후 부담이 개인에게 집중되고 자산 격차를 노동소득으로 만회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한국의 노사 갈등이 해외보다 격렬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금모으기 운동 시절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애국심의 크기가 아니다. 함께 버티면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의 존재 여부다. 지금은 그 믿음이 합리적이지 않은 사회가 됐다. /koogija_tea@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7일 (음 4월 11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상황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60년생을 자중함이 매우 좋을 것입니다. 72년생 환경의 변화는 불필요합니다. 84년생 좋은 흐름의 시기를 알고 나가기엔 막힘이 없었습니다.



49년생 매우 잘 풀려 참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61년생 하늘과 땅이 다같이 흰합니다. 73년생 곧 귀인이 저절로 찾아 옵니다. 85년생 남도 보고 뽕도 따졌으니 잘 풀려 나가겠습니다.



50년생 마음이 더욱 초조해집니다. 62년생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고 꼭 방심하지 마세요. 74년생 사업을 유지하면서 축소나 확장은 하지 마세요. 86년생 안좋은 습관은 병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51년생 사방이 아주 험한 산들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63년생 쉽게 이루어지기는 끝내 어렵습니다. 75년생 노력을 했으나 결실은 만족치도 못합니다. 87년생 후유증이 발병할 조짐이 있습니다.



52년생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라 하겠습니다. 64년생 조금은 다소 어려운 처지에 있겠습니다. 76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풀립니다. 88년생 애정운이 매우 좋습니다.



53년생 아끼지 말고 새롭게 힘껏 다시 도전하세요. 65년생 이성을 동반하는 즐겁고 가벼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77년생 여자의 말에 차분히 귀를 기울이세요. 89년생 조금함을 버리세요.



54년생 좋은 기회가 오기 마련입니다. 66년생 늘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세요. 78년생 친구의 유혹 등을 주의하세요. 90년생 허욕이나 욕심을 버리고 직책에 충실해야 나중에 좋을 것입니다.



55년생 당분간 구설수에 시달리게 됩니다. 67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쉽게 나지 않는 운입니다. 79년생 노력하지만 큰 보람없이 무너집니다. 91년생 마음에 수심만 더욱 가득하다 하겠습니다.



56년생 안정지 못하고 몹시 불안하고 위태위태합니다. 68년생 기대만 컸을 뿐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80년생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세요. 92년생 시작이 반입니다.



57년생 동쪽에서 양심 있는 참 좋은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69년생 사업이 차차 조금씩 진전이 있습니다. 81년생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93년생 곧 반가운 소식이 오게 됩니다.



58년생 원통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70년생 귀하를 해하려는 자들의 나쁜 음모가 진행중입니다. 82년생 늘 건전한 사고를 지니도록 하세요. 94년생 당장은 업종은 꼭 바꾸지 마세요.



59년생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71년생 불분명한 행동은 주위로부터 신용을 크게 잃게 됩니다. 83년생 병이 찾아옵니다. 95년생 희망하는 직종을 찾았으나 능력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김상회의四季 트럼프의 군인 사랑

정치 지도자는 말과 행동으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나타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에게는 군인이 그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인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늘 보여줬다. 그는 취임 이후에 강한 군대가 강한 미국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에 대해 깊은 애정을 표현하곤 했다. 군인을 나라를 지탱하는 핵심으로 본 것이다. 군인을 대하는 트럼프의 언어는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 군인을 영웅이라고 부르거나 그들이 나라를 위해 어떤 고난을 감수하고 있는지 열거한다. 일부에서는 이런 표현을 정치적으로 언급하는 것뿐이라고 하지만, 지속해서 언급한다는 건 실제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는 전쟁 지역에 있는 병사들, 부상 당한 참전용사들 그리고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군인들 같은 다양한 상황의 군인들을 배려하지 않고 챙기고 위로한다. 트럼프의 군인 사랑은 집권 초기부터 군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국방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최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안을 발표하며 군을 챙겼다. 장비 현대화와 군 장비의 복지에 역점을 둘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국방 예산 확대는 평소 군인에 대한 애정을 보였던 그의 메시지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작년에는 미국 연방정부 섰다운 사태 속에서도 군인에 대한 급여는 계속 지급하라고 지시하는 일도 있었다. 그의 군인에 대한 응원은 군 기지를 방문하거나 장병들과의 직접적인 만남 행사가 있을 때, 트럼프는 단순한 행사로 끝내지 않고 중요한 격려의 메시지를 빠지지 않고 전한다. 트럼프의 정책과 발언은 군인을 나라의 중심축에 놓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회의 세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훈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퍼즐과 흥미로운 증가방식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3	8	5			
	3	1						
3		5		6	9	7		
		4		9		6		
9			1					5
	5		8		2			
	7	1	2		8			9
				1	2			
3	2	9						4

5	4	9		6	3			
	7			4				
	5	2	7				8	6
3	9					8		
	6						1	
		7					5	9
7	2			6	9	4		
			9				2	
	8	5		6	3	4		

7	8	9	2	9	2	8	1	6
2	2	1	9	8	6	9	8	2
8	7	6	9	1	8	9	2	2
6	9	2	8	7	1	2	8	9
8	1	2	8	6	9	7	9	2
9	9	8	2	2	7	1	6	8
9	8	7	6	8	2	2	9	1
1	6	9	7	2	9	8	2	8
2	2	8	1	9	8	6	7	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1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2023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정근식 '대통합' 제안에도... 진보진영 단일화 무산 기류

6·3 서울시교육감 선거

정근식, 단일화 필요성 거듭 강조
한만중 "현재로서는 완주할 의지"
홍제남 "교육 논리로 교육 이끌어야"
이학인 "교육격차 해소 가장 시급"



정근식 서울교육감 후보



한만중 서울교육감 후보



홍제남 서울교육감 후보



이학인 서울교육감 후보

6·3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진보 성향 후보들 사이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둘러싼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진보 단일화 후보인 정근식 후보는 선거 막판까지 진보 진영 대통합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다른 후보들은 사실상 완주 의지를 분명히 하며 선을 그었다.

26일 서울 용산구 서울교육청에서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단이 마련한 진보 교육감 후보 기자회견이 열려 정근식·한만중·홍제남·이학인 후보가 각자의 교육 공약과 선거 구상을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진보 단일화 경선에서 정근식 후보가 단일후보로 선출됐지만, 이후 일부 후보들이 절차와 방식에 문

제를 제기하며 독자 출마에 나섰다. 한만중 후보는 경선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완주 의사를 밝혔고, 홍제남 후보는 단일화 추진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별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정근식 후보가 '민주진보 단일후보'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진보 성향 후보들이 함께 출마하는 다자 구도가 형성됐다.

이날 후보들은 교육 공약을 앞세워 차별화에 나섰다. 정근식 후보는 "민·진·보" 연합을 통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공약을 제시하며 독자 출마에 나섰다. 한만중 후보는 "현재로서는 완주할 의지"를 밝혔고, 홍제남 후보는 "교육 논리로 교육 이끌어야"라며 "교육격차 해소 가장 시급"이라고 강조했다.

정근식 후보는 단일화 논의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대통합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단일화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며 "진보 진영뿐 아니라 중도·보수 인사들과도 서울교육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하고 정책을 받아들이며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홍제남 후보와 후보 등록 전 만났고, 한만중 후보와도 토론회 등에서 접촉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민·진·보 교육 진영은 서울교육의 역사적 전통으로

단일후보를 만들어왔고, 선거 결과에 승복해온 전통이 있다"며 단일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다른 후보들은 사실상 독자 완주 입장을 내놨다.

한만중 후보는 "현재로서는 완주할 의지"라며 "선거는 서울교육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유권자에게 성실히 내놓는 과정"이라고 했다. 진보 진영 표 분산 우려에 대해서도 "진보와 보수 진영 양측에서 8명 후보가 출마한 상황

에서 이른바 진보 분열 때문에 보수에 넘어간다는 것은 기우"라고 일축했다.

홍제남 후보 역시 단일화 논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 후보와의 접촉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후보가 된 뒤 대통합을 말하는 방식에는 아쉬움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이제는 진영 논리를 넘어 정치가 아닌 교육 논리로 서울교육을 이끌어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학인 후보 역시 단일화 논의보다는 독자 행보에 무게를 뒀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별도의 단일화 입장을 전면에서 내세우기보다 "교육격차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정책 경쟁을 통해 유권자 평가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까지도 진보 진영 후보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서울교육감 선거가 진보 표 분산 속 다자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서울시, 골목상권 75곳 공동마케팅 돕는다

올해 총 24억6800만원 투입
오는 29일 1차 공모... 50곳 선정

서울시가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와 영세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처음으로 이동형 상권 안내 스탠드와 포토존, 배너 등 상권 인지도를 높이는 간이시설물 지원을 도입하고 공동마케팅 사업도 늘린다.

서울시는 올해 총 24억6800만원을 투입해 골목형상점가 75곳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당초 예산 12억9500만원보다 90.5% 늘어난 규모다.

우선 오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1차 공모를 진행해 50곳을 먼저 선정한다. 선정된 상권에는 규모에 따라 최소 2000만

원에서 최대 4000만원의 공동마케팅 사업비가 지원된다.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 사업은 소규모·영세 골목상권을 제도권 지원 체계에 편입해 경쟁력을 높이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골목형상점가 110곳을 신규 지정해 당초 목표(100곳)를 넘겼고, 별도 공모를 통해 60곳에 공동마케팅을 지원했다.

올해는 상권 가시성을 높이는 신규 지원도 추가했다. 이동형 안내 스탠드, 한시 운영형 포토존, 흡착형 깃발, 가로등 배너 등을 통해 시민들이 골목형상점가를 더 쉽게 찾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골목형상점가 225곳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했다. 응답한 202곳 가운데 166곳(82%)이 상권 인지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대상은 공공 마감일 기준 서울시 내 지정이 완료된 골목형상점가다. 인접 상권과 연합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이나 중소벤처기업부 유망 골목상권 사업에 참여한 상권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상인회는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을 갖춰 상권 소재지 관할 서울 신용보증재단 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현진 기자

오래된 고양시 도시공원 쾌적하게 바뀐다

주교2호어린이공원 등 환경개선

고양시가 시민들의 생활권 가까이에서 여가와 휴식을 누릴 수 있는 도시공원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시공원은 도심 속 녹지공간이자 산책과 휴식, 이웃 간 소통이 이뤄지는 생활 인프라로, 시민들의 주거 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시는 노후 공원 정비로 통해 쾌적한 여가 환경을 제공하고, 도심 열섬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환경 개선 효과도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덕양구 내 145개 공원 가운데 시설이 낡은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세대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휴식·운동 기능을 고루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성된 지 30여 년이 지난 주교2호어린이공원은 시설 노후화로 고양시는 경기도



주교2호어린이공원 전경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을 투입해 오는 6월부터 전면적인 환경개선 사업에 착수하고, 7월 중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한다. 시는 기존의 낡은 놀이시설을 최신 놀이대로 교체하고, 바닥에는 트램폴린을 설치해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덕양구 성사동에 위치한 성리공원도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 시는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과 특별교부세 4억원 등 총 14억원을 확보해 노후 시설 개선에 나섰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 일하기 좋은기업 등 10곳 환경개선

중소 고용환경 개선지원 사업
기업 당 최대 2000만원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도내 일자리 우수기업과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10개사를 최종 선정하고, 기업당 최대 2000만원 규모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나선다.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휴게시설과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고용 안정성을 높일겠다는 취지다.

이번 '2026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인정한 '일자리 우수기업'과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지원 분야는 휴게실과 구내식당, 화장

실, 사무·작업공간 등 복지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 전반이다. 재단은 현장 중심의 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 만족도와 고용 유지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업 대상 기업은 서류 검토와 정량·정성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선정기업에는 썬우리아이엠아이, 썬네스스비, 썬아이티비에이아이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시설 개보수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선정기업들은 앞으로 공사 계획 승인과 보조금 교부 절차를 거쳐 휴게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 공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근로환경은 인재 유입과 장기근속,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우수한 일자리 환경을 갖춘 기업을 지속 발굴·인증하고 있다. 현재 인증이 유효한 일자리 우수기업과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은 총 139개사다.

하반기에는 신규인증기업 모집도 추진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신청 대상을 도내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5 | 해질 / 19:44

5월 27일 (수)
음력 : 4월 11일

수도권 날씨
21~25°C

운동 지수: [진행률 막대]
빨래 지수: [진행률 막대]
세차 지수: [진행률 막대]
이출 지수: [진행률 막대]

지역별 날씨:

- 연천 15/25
- 동두천 19/24
- 백령도 18/22
- 파주 19/24
- 가평 18/23
- 서울 21/25
- 양평 20/24
- 인천 21/26
- 수원 21/25
- 용인 21/25
- 평택 21/2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 한국 비하 발언으로 사퇴한 日 올림픽 간부... 선수들 "예견된 일" /사진 뉴시스

▲ 3명 숨진 크루즈선 탑승자 한타바이러스 또 확진...스페인 승객 고도격리

▲ 美 F-35 약점까지 봤나...中, 통신·레이더 시로 전자전 판 흔든다

▲ 美 캘리포니아 연봉 1위 직업은 '치과 의사'... "연봉 5억 돌파"

▲ "美·이란 종전 MOU에 이스라엘 우려...극우, 전장으로 돌아가야"

▲ "아시아 시장 원유 재고 한계...유럽·미국도 1~2달 내 악화"



냉면가격 고공행진
가정용 여름면
수요 급증
니



Life

SK바사
콜롬비아에
백신 기술이전
L2



“AI, 장애인 소외 아닌 세상과 연결하는 ‘포용의 도구’ 돼야”

CEO 와칭

이종성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확산은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지형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데이터와 디지털 적응력이 고용의 새로운 기준이 되면서, 변화의 속도에 취약한 장애인 등 노동시장 내 소외계층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러한 대전환의 길목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내놓은 해법은 명확하다. 기술을 배제의 수단인 아닌 ‘포용의 도구’로 삼아 장애인 고용 생태계를 미래형으로 전면 혁신하겠다는 비전이다.

◆ 이종성 이사장의 경영철학: 배제의 기술을 ‘포용의 사다리’로

이종성 이사장의 시선은 위기보다 가능성을 향한다.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방향으로만 흐른다면 또 다른 불평등을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기술을 ‘포용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AI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연결하는 기술이어야 한다”며 기술 혁신이 지나야 할 궁극적인 지향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기술 발전이 또 다른 소외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AI는 장애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연결하는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경영철학 핵심은 무조건적인 보호가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중앙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사회개발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사회복지법인 에이블 복지재단 사무국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기획관리국장,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장애인문화체육과장, 서울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한국 지자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제21대(2020년 5월 ~ 2024년 5월) 국회의원을 지냈다.

36주년 맞은 장애인 고용 전문기관 직업훈련·취업 지원·컨설팅 등 총괄 디지털 기반 새로운 영역 개척 나서

AI 등 기술발전에 노동시장 지형 재편 배제보다 포용, 위기보다 가능성에 주목 디지털 역량 강화... 미래 경쟁력 키워 맞춤 교육으로 현장 실무능력 대대화

오는 28일,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개최 웨어러블 로봇·AI 기반 보조기기 등 장애인 직무 넓히는 첨단기술 소개

아니라 철저한 ‘역량 강화’에 있다. 이 이사장은 “장애인이 변화의 뒤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산업과 기술 변화 속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역할: 36년 노하우 바탕으로 미래형 직무·인프라 혁신

1990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의 직업훈련부터 취업 지원, 고용 유지, 기업 컨설팅까지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장애인 고용 전문기관이다. 전국 조직망을 기반으로 장애인 고용 생태계를 구축해 온 공단은 올해 창립 36주년을 맞아 ‘미래 일자리 대응’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가 빠르게 자동화되는 만큼,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공단의 핵심 임무가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단순 반복 업무 중심의 기존 직무에서 벗어나 디지털 콘텐츠 제작, IT 기반 사무행정, 데이터 활용 직무 등 미래 산업과 연계된 역량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이사장은 “AI 기술은 장애인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장애 특성과 강점을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 훈련을 통해 미래 산업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전국 디지털훈련센터를 중심으로 삼아 소프트웨어 개발, 빅데이터 등 첨단 IT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기반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현장 실무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AI 데이터 분석 ▲디지털 융합사무 ▲반도체품질분석 등 고도화된 실무 중심 과정을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지난해 개원한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 장애인 직업훈련기관인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은 첨단 실습시설과 기숙형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된 미래형 인재 양성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며 공단의 미래 전략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 공단이 주도하는 미래 비전: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 함께 일하는 사회

기술의 발전은 장애인의 직업 훈련을 넘어 채용 전형과 근무 환경마저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다. 실제 채용 현장에서는 AI 기반 화상 면접 시스템과 모의면접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 구직자의 실전 적응력을 높이고 있으며, 개인 역량을 분석해 최적의 직무를 매칭하는 AI 추천 서비스도 고도화되는 추세다.

공단이 오는 5월 28~29일 개최하는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역시 이런 변화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사다. 박람회에서는 웨어러블 로봇, 산업용 협동 로봇, AI 기반 보조기기 등은 장애인의 신체적 한계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과거에는 수행하기 어려웠던 작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직무 영역과 활동 범위를 신산업 전반으로 넓히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첨단 기술이 소개될 예정이다.

나아가 공단은 산업계의 ESG(환경·사회·투명경영) 경영 확산 흐름에 발맞춰 대기업의 직접 고용 확대와 표준사업장 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고용 기반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을 단순한 의무 이행이 아닌, 다양성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포부다. 이 이사장은 “장애인 고용은 기업의 철학을 보여주는 선택”이라며 “다양성을 포용하는 조직문화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 이사장이 그리는 미래는 단순히 장애인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는 사회가 아니다. 기술 변화 속에서도 누구나 자신의 역할로 당당히 일할 수 있는 사회, 장애를 차이 아닌 다양성으로 받아들이는 포용 사회다. 이 이사장은 “장애인이 미래 산업에서도 당당한 구성원으로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술은 사람을 밀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제20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에서 이종성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우측 두 번째)이 기기 시연 설명회를 듣고 있다.



2026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축하퍼포먼스 모습.



▲바둑 신진서·신민준, 양카이원·황원성 꺾고 춘란배 8강 진출
▲AC밀란, 감독·단장 비릇 수뇌부 줄줄이 경질... UCL 진출 실패 후폭풍

/사진 뉴스스

▲스페인, 북중미 월드컵 최종 명단 발표... ‘명문’ 레알, 0명 골욕
▲‘중동 전쟁’ 이란, 미국 대신 멕시코에 베이스캠프...참가국 전원 확정

▲“‘챔피언’ 독일 무찌른 한국”...월드컵 앞두고 ‘카잔의 기적’ 재조명
▲26명 중 24명 합류한 홍명보호, 북중미 월드컵 완전체는 언제?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공식 = AI + BIO

LG의 AI·BIO 융합기술은 암,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질병의 정밀진단과 신약개발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여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미래, 같이

시로 세상을 미소 짓게 하는
미래가치를 만듭니다

